東亞日報

二十日夕刊 本紙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光化門代表番號一九〇〇

新聞價 廣告料

社說

學者輩出

—學界의 盛事—

一

昨紙第二面에는 一時에 朝鮮人 新博士二名이 發表되엿다. 學問에 一時에 二人의 博士가 輩出하는 것은 眞實로 一大盛事다. 더구나 兩博士는 今番이 첫번으로 朝鮮人 全體를 爲하야 慶賀할 일이다.

博士란 學位가 한낫의 形式的 表彰임은 勿論이나 어떤 것으로서 學界에 對한 貢獻의 證據를 表示하고 一般人의 向學心을 衝動함에 잇서서는 社會的으로 또한 意義가 잇다 아니할 수 없다.

二

무릇 人類는 學問으로써 發展한다. 우리는 學問의 힘으로 暗黑한 荒野를 沃土로 化할 수가 잇고, 東西幾萬里의 遠距離를 數日에 踏破할 수도 잇다. 吾人의 衣食住 其他 온갓 物質的 生活이 學問의 힘에 依하야 發達됨은 勿論이어니와 學問은 實로 吾人의 消費, 吾人의 倫理等 精神的 文化的 生活도 改善하는 것이다. 獨逸이 現代와 같이 政治的 苦難에 處해잇스면서도 能히 世界에 一等國임을 保持하고 그의 學問 그의 文化가 世界에 卓越하야 잇는 것은 [illegible]

三

도리혀 우리의 社會를 一瞥하면 新文明이 輸入된지 이미 數十年에 達하엿건만 十人의 (西洋서 받은 者는 除外) 醫博과 一人의 理博을 가젓을 뿐이 아니냐. 環境이 如何히 不利하다 할지라도 좀더 民衆의 努力이 잇섯드면 現在數 以上의 學位를 가젓슬 것이다.

그러나 他面 다시 一考하면 當局의 朝鮮人에 對한 差別的 政策에도 그 原因이 잇지 안흔가. 現在의 京城帝大에는 朝鮮人으로서 一人의 敎授도 없지 안흔가. 아마 當分間도 亦是 그러하리라 밋는다. 이것은 當局의 差別政策이오 朝鮮人의 無能에만 잇는 것이 아닐가 한다. 우리는 當局者들의 良心上의 答辯을 求하는 바다.

勞賃引下

—當局은 居中調停하라—

一

京城府工廠合作 百二十餘名은 昨年中에 一割의 勞賃減을 當하엿슴에 不拘하고 今番 다시 二割의 勞賃을 減케 된다 하야 一齊 同盟罷業을 이르키고, 永登浦 京城紡織會社의 女職工 六十名은 勞賃이 減下된다 하야 同盟罷業에 이르럿다. 京城府工廠合作의 勞銀이 二割을 減額을 當하게 되는 것은 昨年中에 一割이나 減하고 今年에 다시 二割을 減하는 것은 實로 同情할 만한 일이다.

多少 當局은 物價低落으로서 하야 不況에 比하야 勞賃引下를 當然한 事實이나 그러나 平素 그들의 生活을 보장하는 것이나 過去에 [illegible]

二

이라하야 勞賃을 減下한은 너무도 工産物이 勞働者의 손으로 製作되는 것을 忘却한 處事다. 五錢의 勞賃이 施되지 않는 朝鮮에서 勞賃이 低廉하다고 하는 것은 現代에 또 永登浦製絲의 協調를 말할 것이 되는 것은 十四時間勞働에 不過十이 아닌가. 그들의 要求에는 十分의 理由가 잇다 할 것이다. 當局은 居中調停할 것이어다.

獨逸財政危機로 七個國大臣會議

倫敦會議는 財政問題에 限定

佛國은 영案不改條件附參加

共同聲明書를 發表

【巴里十九日發電通】獨逸財政危機並 歐洲의 一般問題에 關하야 協議하기로 十九日은 日曜임에도 不拘하고 佛首相 라발, 外相 브리앙, 駐佛日本大使 吉澤, 米國財務長官 멜론, 獨逸首相 뿌류닝, 外相 쿠르티우스, 英國外相 헨더슨, 伊國外相 그란디 諸氏等이 目下 巴里에 在하야 關係七個國代表는 十九日午前九時 內務省에 會合하얏다.

【巴里十九日發電通】今朝來 內務省에서 會合中이든 七個國代表者會議는 午後二時 散會하고 左와 如한 聲明書를 發表하얏다.

【巴里十八日發電通】佛國은 佛獨會商의 經過에 依하야 廿日부터 倫敦에 開催되는 大臣會議에 對하야 討議事項을 限하기로 되엿다.

會議席上 獨逸首相 뿌류닝氏는 獨財政危機救濟問題에만 限하고 軍縮案改正等에 觸치 안흘 것을 說하고 危機救濟의 方法에 對하야는 參加하기로 되리라 한다.

佛第二回會商

協定成立有望

十九日夜聲明書公表

【巴里十九日發聯合】本日午後 表列席下에 佛內務省에 開催된 獨佛第二回巴里七個國會商은 前後二時間半 繼續하고 一時休會하고 午後七時에 會하야 少憩하야 보았고 列强代表는 夏日의 午後의 外相의 協議로 晩餐을 가리 斷하는 內務省庭園에 立하야 모다 하고 更히 會議를 繼續하야 午後十一時에 至하야 會商結果에 對한 聲明이 公表되엿다. 此에 依하면 佛獨間에 協定成立의 希望이 充分하다 한다.

七個國會談 十九日終了

一同記念撮影

【巴里十九日發聯合】本日午前十時부터 世界列强 七個國代表하얏다.

銀行取引 緩和로

第三緊急令

【伯林十八日發電通】한편부터 氏는 二個의 緊急令을 發하얏는데 同日다시 二十日부터 三日間 銀行取引緩和를 [illegible]

獨逸五政黨 猛然佛案에 反對

國辱的提案이라 하야 首相에의 警告聲明

【伯林十八日發電通】對獨크레디트設定問題가 佛國의 基礎案에 依하야 形勢가 好轉하야 가는 故로 獨逸首相 뿌류닝博士가 부터 우스外相과 同伴하야 倫敦政治家會議와 準備會議에 出席하기 爲하야 至急히 巴里에 向하고저 하야 關係各側과 妥協에 奔走하고 잇는 반面에는 佛國軍 反對運動이 漸漸熾烈하야 五政黨(內三政黨은 現甚뤼닝內閣에 閣員을 내고 잇는 黨들이다)代表等은 十七日夜聯合協議會를 開催한 結果 左의 共同聲明書를 發表하야 佛國政府가 對獨크레디트 設定에 關하야 十六日關係各國에 提出한 案은 그 政治的 要求로 보면

正히 國辱的의 提案이다 首相은 宜히 此를 拒絶하야 首相이 萬若 如斯한 提案을 受諾한다 하는 首相이 잇다고 하면 吾人은 直히 此를 獨逸政界로부터 追放하고저 하는 것을 警告해 둘 수밧게 없다.

(佛案)十六日의 佛國案이라 하는 것은 旣報와 가티 十億圓以上의 對獨크레디트를 設定하되 (一)獨逸은 關稅收入을 抵當으로 하라 (二)獨逸은 軍備豫算을 增加치 마라 等의 條件을 부친 案을 가르친다.

長期公債에 米國反對

米獨會商不調

【巴里十九日發聯合】獨逸首相 뿌류닝氏와 米國財務長官 멜론氏는 十八日 會見하얏는데 米國側은 獨逸財界의 危機를 救하는데는 長期公債에 依하는 것보다 短期信用을 [illegible]

佛라발案은 大修正未免?

獨逸債務에 對한 國保障에 …英米兩國反對로

【華盛頓十八日發電通】米國에 對하야 佛國政府가 保障責任을 負擔한다는 佛首相 라발氏가 引受한 十億弗의 對獨借款에 關하야 英米兩國으로서는 政治的保障을 必要로 하는 佛國의 條件을 承認하지 안흘 것이며 如何히 하여야 協定에 參加할 것이냐가 問題라 하는바 萬若 그러한 佛國側의 要求가 撤回되지 안흐면 米國은 參加하지 안흘 것이라 하며 他面 佛國政府는 別問題라 하야 [illegible] 英米兩國이 그 條件을 各國의 協議에 依하야 解決하기로 하야 英國은 如何한 形式으로든지 參加하리라 하며 佛國案에 對하야 反對하리라 한다.

百年知己처럼 兩首相會談

約四時間折衝共同聲明發表

獨佛兩國의 感情好轉

【巴里十八日發聯合】佛獨第一日會談 以來 最初로 佛國을 訪問한 獨逸首相 뿌류닝氏는 十八日 佛首相 라발氏와 會談하야 又獨外相 쿠르티우스氏도 佛外相 브리앙氏와 會談하얏는바 此會談은 兩國의 感情을 融和好轉케 하얏다.

【巴里十八日發聯合】十八日午後 獨首相 뿌류닝, 外相 쿠르티우스 兩氏와 佛首相 라발, 外相 브리앙 四氏는 約四時間 繼續된바 右會商에 關하야 佛獨共同으로 左와 如한 聲明을 發表하얏다.

綜合債務補償案

獨逸各銀行同意

【伯林十八日發聯合】獨逸各銀行은 公共信用機關全部 信用機關이 艱難에 陷入한 結果로 惹起될 一切의 困難을 克服할 目的으로 綜合債務補償案에 同意하얏다.

獨資本海外流出 防止緊急令內容

【伯林十八日發電通】獨大統領 힌덴부르크氏는 十八日 資本의 海外逃出과 脫稅行爲를 嚴重取締할 目的으로 二個의 緊急勅令을 發布한바 其一은

一, 獨逸의 納稅者는 七月卅一日前에 外國通貨와 所有高를 申告할 事

一, 海外의 獨逸會社도 同樣 適用을 受한다

二, 納稅者는 帝國銀行에 對하야 同行의 現行爲替率로 所有外國通貨를 賣却할 事

三, 申告를 怠慢한 者는 十年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又故意로 財産을 隱匿하야 申告치 안는 者는 懲役及罰金을 科하고 그 財産을 沒收함

四, 此緊急令은 正式으로 法律에 依하야 六個月以上 居住하는 外國人에도 適用함

其二는 獨逸人으로서 海外에 旅行하는 者는 出發前 百馬克을 納付할 事 違反하는 者는 一千馬克의 罰金或은 禁錮刑에 處함

以上은 法令이다

拓務省廢止 商農省合倂

原、櫻內兩相은 强硬히 反對

重大視되는 歸趨

【東京十九日發電通】政府는 最初聲明도 廳廢合에 依하는 것이나 行政整理準備委員會의 第三次會議에 依하야 이에 對한 大綱이 決定되고 이에 拓務省을 廢止하고 商工, 農林兩省을 合倂하기로 決定하야 이에 對하야 原, 櫻內兩相은 反對하고 잇스나 政府는 이를 强行하기로 決定하얏다. 그러나 首相과 閣僚들과 [illegible] 重大視된다.

與黨內에도 拓省廢止反對

紛糾는 難免狀勢

【東京十九日發電通】行政整理準備委員會 第二次 調查會에서 拓務省廢止 其他의 大綱이 決定되바 原拓相은 拓務省의 廢止에 絶對反對意見을 有하고 또 拓務省의 廢止問題가 臨時行政審議會에 上程되기 前에 閣僚間에 充分한 意見을 交換할 것이라는 意見을 有하야 近近閣議에서 井上藏相에게 對하야 行政整理案의 說明을 要求할 터이다.

한편 拓相의 反對理由는 殖民地의 拓務는 各地域마다 特殊한 事情이 有하야도 相互間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六年度豫算 編成極困難?

各省에 모다 異論이 百出

軍部態度依然强硬

【東京十九日發聯合】政府는 六年度豫算의 編成에 盡力하야 各省豫算의 節減을 爲하야 主力을 注하는 中이며 陸軍은 勿論이요 各省에서도 異論이 百出하야 到底히 豫算節減의 見地에 到達하기는 至難할 것이며 大藏省要求額의 捻出은 [illegible]

軍縮陸軍全權

【東京十九日發電通】明年二月에 開催될 一般軍縮會議의 陸軍全權은 左와 如히 內定하얏다.

參謀本部第四部長 中將 建川美次

首席隨員 參謀本部 中將 阿部信行

中將 杉山元

日本人商店의 商品을 沒收

上海排日最初의 犧牲

【上海二十日發電通】排日運動은 漸盛하야 二十九日 日本人商品을 輸入하는 商店에 對하야 日本商品을 沒收하고 中國人商店은 이에 因하야 局面이 一轉하야 一般은 이 問題를 當然하다고 안다. 公安局에서 呼訴를 受理하고 이에 大市長도 日本商品의 沒收를 排日運動 具體化의 第一步로 認한다.

專賣局의 缺損 五百五十萬圓

專賣局의 本年度의 歲入減은 大槪五百五十萬圓으로 見積되는데 이는 專賣局의 節約으로 補塡하기로 되엿는데 [illegible]

奉軍戰線短縮

石家莊以北固守

石軍엔 反히 有利

【奉天十九日發電通】奉天軍의 武裝解除가 되엿다는 報道가 當地에 達하야 東北軍當局은 憂慮하고 잇다. 石家莊以北의 守備를 堅固히 하기 爲하야 河南省南部의 戰線을 短縮하고 廣平以南에 駐屯하고 잇는 步兵第六旅 騎兵第四旅를 北方에 後退시키엿다. 此로 因하야 石友三軍은 平漢線에 依하야 有利하게 되엿다.

武裝解除된 奉天軍七百

石友三軍에게

【奉天十九日發電通】旣報 奉天軍의 騎兵第四旅 第一團은 河北省 石家莊 附近의 戰線에서 退却할 際에 石友三軍에게 包圍되야 七百의 兵은 武裝을 解除되엿다.

黑龍江軍을 北平에 輸送

【奉天廿日發電通】增援된 黑龍江軍 一個旅中 第三十旅는 十九日來 打通線으로 輸送을 開始하야 三個列車로 虎山經由 北平에 向하얏다.

北平天津의 戒嚴司令任命

丁氏와 張氏

【北平二十日發電通】副司令 于學忠氏는 北平 [illegible]

尾崎氏渡歐

政治修業하러

【東京二十日發聯合】三年前부터 失意의 政治生活을 送하든 尾崎行雄氏는 政治的更生에 一念을 發하야 來八月十三日 橫濱出帆 政治修業의 途에 上하기로 되어 英米를 爲始하야 獨逸과 伊太利와를 視察하고 明年二月頃 歸國할 터이다.

佛首相外相에 헨더슨兩氏謝電

【倫敦(佛)十九日發聯合】倫敦에 向하야 巴里를 出發한 헨더슨兩氏는 途中에서 佛國首相, 外相에게 謝電을 發하얏다.

家會議에 出席하기 爲하야 十九日午後四時 巴里를 出發하야 倫敦에 向하얏다.

恩給法改正案 相當波瀾?

軍部學校大反對

【東京十九日發聯合】恩給法改正은 今回의 行政整理準備委員會의 一大眼目이며 同問題에 關하야 最後的 決定을 行하기 爲하야 廿日委員會를 開하고 最强硬한 反對意見을 有하는 陸海軍側의 意見을 存하고 退職者는 最後의 三年間俸給의 平均額을 恩給의 基礎로 하는 것으로 此에 對하야 前記軍部及學校職員에 强硬한 反對가 있서 決定까지에는 相當히 紛糾되리라 觀測되다.

不能하며 延하야는 六年度豫算의 編成에 陷入하리라하야 當局은 自然 [illegible]

萬一 讓步치 안흘 境遇는 不得已 恩給法改正에 對한 準備會의 決定으로 實行할 것이라 한다.

萬寶山事件 日中兩方의 對策

不遠具體的交涉

【奉天十九日發電通】張作相氏와 萬寶山交涉方針을 協議하기 爲하야 來奉中인 吉林省交涉員 鍾毓氏는 午後三時半 林總領事와 石射吉林總領事에 會하야 同交涉은 石射吉林總領事와 鍾毓氏間에 具體的 交涉에 入할 터인데 民國側 對策은 萬寶山朝鮮人二百名의 今日까지의 損害를 賠償할 터이라 하며 萬寶山에서 撤退하야 달라는 데에 日本側으로서는 事態가 今日과 如히 微妙하게 되엇는데 다른 地方의 朝鮮人에 對한 影響도 可觀이니 絶對不可能하다고 主張하고 萬寶山事件의 解決은 相當日數를 要하리라 한다.

陳銘樞氏 討蔣派參加

第二集團軍 司令就任說

【廣東十九日發聯合】前廣東省政府主席 陳銘樞氏는 討蔣派에 參加할 意思를 表示하얏다 한다. 廣東政府는 卽時陳銘樞氏를 第二集團軍總司令에 任命하얏다. 陳氏의 就任同時에 韶州에 集中하고 討蔣通電을 發表하기로 되엿다.

民政東北北海大會

若槻總裁以下 五千名이 參集

【秋田十九日發電通】若槻新內閣의 施政方針을 天下에 宣明할 最初의 機會라 하야 內外의 視聽을 集한 民政黨의 東北, 北海道大會는 十九日午後一時 秋田市記念會館에서 擧行되바 若槻首相, 町田農相, 田中文相, 櫻內商相, 山道幹事長以下 北海, 東北選出 貴衆兩院議員, 前代議士, 一千名을 爲始하야 黨員約五千名이 參加하야 [illegible] 助氏를 議長에 推擧하고 宣言決議를 滿場一致로 可決한 後 若槻總裁가 登壇하야 內治, 外交, 特히 對中, 對蘇政策, 世界軍縮會議 及 世界平和에 處할 日本의 態度와 行財政整理의 大整理에 對한 政府의 所信을 約四十分에 亘하야 强調한 後 祝辭, 演說 等이 잇슨 後 大會를 閉하고 皇后兩陛下의 萬歲, 民政黨萬歲를 三唱하고 大會를 終하고 盛況이엇다.

政友會의 府縣選擧對策

政治講習會와 支部長會議等

【東京十九日發聯合】政友會는 今秋의 府縣會議員選擧對策으로 二十日부터 本部에 地方代表에 對한 政治講習會를 開하고 八月一日에는 全國支部長會議를 召集하야 個個面接하야 一般方策의 秘策을 授하는 等 着着準備를 進하는 同時에 今春天下에 發表한 十大政綱의 具體化를 計하고 選擧對策으로 此를 揭用하기로 調査를 進하야 [illegible]

辭令

朝鮮總督府遞信書記 淺利義勇

同 岡文一

任遞信副事務官 遞信技手 坂井洋一

同 大泉製明

任遞信技師

人事往來

▲魏錫鎭氏(民國副領事) 南京外交部轉勤人事次本社來訪

▲楊佑氏(民國副領事) 新任人事次本社來訪

橫說竪說

□ 新博士 두분 中에도 빛나는 最初의 日本博士。

□ 谷山郡 棉花面엔 李家가 百餘戶。 가담을 못지마소, 窮民의 廢墟라오!

□ 都會엔 住宅難、農村은 住人難。 어대로 나가면 願大만 날골꼬。

□ 科外 官吏에 三國時間。 어름은 『勞働公普』인가。

各種作業服 勞働ズボン 製造卸

大阪谷三 辻豐商店 電話東船場オサクズボン十

夏物 羅紗洋服 製品 品揃

商店에 限하야 商號及卽地見本 送呈함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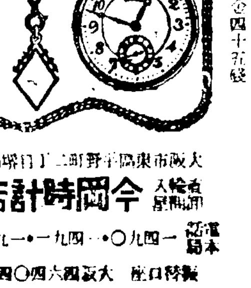
實用懷中時計夏季特賣

구루-부 側十六型 石入 양구루 구루-부 卽 배다루, 상구루

右二品 四圓五十錢

送料 郵金 四十五錢

(中央氣象臺檢查濟)



定數잇스니 品切前에 注文하시오

(檢定證送呈)

大阪市東區平野町三丁目堺筋 入谷肥料屋 今岡時計店

電話本局 一四九〇、一四九一、一九〇八

振替口座 大阪四六四〇四番

今般一般乘客의 便宜를 圖하기 爲하야 從來보다 營業을 一層擴張하고 七月一日부터 京城江華間直通運轉을 開始하는 同時에 各線發着時間과 賃金을 減下改定하얏사오니 顧客諸位는 倍前愛護하심을 바라나이다

合資會社 金浦自動車部 電話六番

代表 明珍錫

京城支部 南大門通一丁目(小廣橋) (電話光化門二七番 二五一五番)

江華支部 江華邑內

時間表

◎京城發 江華行	午前八、二〇	◎江華發 京城行	午前八、〇〇
	午後一二、二〇(城東)		午後四、三〇
	午後四、〇〇	◎城東發 京城行	午後一、三〇
	午後六、三〇(金浦)		
◎金浦發 京城行	午前八、二〇	◎金浦發 江華行	午前一〇、二〇
	午前一〇、〇〇		午後一二、二〇(城東)
	午後二、二〇		午後五、五〇
	午後六、二〇		

菜種大都賣時勢表

特京城白菜	一斗 四、七〇
特京城大根	一石 四、五〇
丸京城大根	一斗 四、〇〇
長京城大根	一石 四、〇〇
開城白菜	一斗 四、六〇
中國蘿	一斗 二、〇〇
芝不白菜	一升 二、四〇

七月十六日現在 一石은 大斗로 十斗

初注文者는 二割의 先金을 要함

本表以下注文은 六月二十四日부터 定價와 比較하시고

都賣目錄及農業案內無代進呈

京城鍾路四丁目七一 京城菜園 振替京城一八六八〇番

독일물감

營業科目 一〇 獨逸染料 工業藥品 硫黃, 晒粉, 炭酸石灰 ●新聞名記入照會次第商報送呈

朝鮮總代理店 合資會社 福壽洋行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二八六番 振替京城九三二番

不動產擔保貸付 市內、地方 迅速取扱

共和商會

自覺업는勞動階級에게 階級的意識宣傳
◇思想團體檄文事件眞相◇ 送局된犯人은六名

재작十八일 경긔도 경찰부고등과에서 송국한 보안법(保安法)과 출판법(出版法)위반의 격문범인자 六명에 관한 사건내용은 금二十일 동경찰부고등과에서 다음과가티 발표하얏다

◇被疑者住所氏名

本籍 全北全州郡全州面多仕町
現住 高陽郡漢芝面茂長里 金聖男(二四)(一名金一洙)(二四)

本籍 京城府雲泥洞
現住 京城府花洞一六 孔元檜(二五)

本籍 忠州郡新元面化石里
現住 京城府黃金町一丁目九六 辯護士事務員 鄭九熙(二三)

本籍 江原道金化郡金化邑
現住 京城府樂園洞二八四 鄭志鉉(二二)(一名鄭栢)

本籍 京城府竹添町三丁目八七
現住 高陽郡延禧面 丁男福(二八)

本籍 京城府太平通
現住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八 鄭雲永(二六)

전긔 피의자들은 무자각한무산계급에 계급적의식을 환긔시키기위하야 금년五월 하순에회합한바잇섯다고한다 그리하야 김성남(金聖男)은 사긔의묵고잇는 시내공평동(公平洞)보신려관(普信旅館)에서 정운영과 협의하고 제一착으로 격문을 작성하얏다 그와동시에 그들은 사회운동제一선에 서서 활동하기를약속하고 계속하야 정운영에게 치청을어든후 김성남은 자긔가긔초한 격문초안을 정백에게보인뒤에 정정하야주기를 청하얏다고한다 다수의 정정을한 동원문을 김성남은 차지다가 정운영에게맛기어 인쇄케하얏는데 동인쇄원지는공원히가하얏다고한다

檄文의謄寫는 某校地下室
위선 사상단체에 써려 七百九十部를作成

이와가티 준비와 분담을한후 인쇄는 시내락원동(樂園洞)모 실업학교 지하실속에들어가서 학교등사판을 승락도업시 사용하야 七백五十부를 인쇄하얏다고한다 동격문 인쇄비용은 김성남이 전부담당하얏고 인쇄한 격문은 정남복이 책임지고 발송하얏다고한다 정운영은 배부한 동격문을바더보고 경찰에게 은익한후 동지들에게 열람시키엇다는 것이라한다 전긔 六인중 정남복과 정운영은 불구속으로 서류만검사국에넘기엇고 그외의四명은 구속으로검사국에넘기엇다고한다

◇發覺端緒 동사건의 발각단서는 전긔 피의자들이 영등포 경성방직회사 총파업때에 그들이 빈번히왕래함을 보아그들이나 아닌가하고 검거취조한결과 사실을 자백하얏다고한다

中人歸國으로 建築工事停頓

【평양】 중국로동자들의 대부분귀국으로인하야 평양부근一대의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는거의정돈(停頓)상태에 빠지게되엇다 목수(木手)로서 남아잇는 사람이 二十二명가량 련와공(煉瓦工)은 겨우五명밧게 업서서 이들의임금은 五十전내지一원이 인상되엇스나 역시인원부족으로인하야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대곤난을초래한것이다

學校檄文은 眞犯이未逮
종로서는 취조만계속 男女學生多數取調

종로서관내의 학교격문사건은 아즉그진범이 판명되지아니하야 동서 고등계에서는 금二十일에도 조도전대학생(早稻田大學生)홍모(洪某)와 기타의 남녀학생다수를 소환하야 엄중한 취조를 하는중이나 그러나 아즉 사건의 단서는 드러나지아니한 모양으로 취조는 계속할터이라 한다

◇簡易驛新設 철도국에서는 래八월一일부터 다음의 간이역(簡易驛)을 개업하기로되엇다

▲群山港 (군산역에서 一키로七분)

▲三防峽 (경원선세포삼방간 세포에서 七키로七분,삼방에서 二키로九분)=三防藥水터)

▲多侍 (호남선영산포고막원간,영산포에서 六키로七분, 고막원에서 三키로二분)

이로써종래 경원선 삼방약수터에 여름철만 림시로 정거하든 정류장은 춘하추동사시를통하야 간이역으로 정거하게되어 겨울에는스키—하는이들에게까지 편리하게되엇다

綠水鴛鴦雙 每日平均五百
리혼 건수도 九천여건 【昨年中統計約卄萬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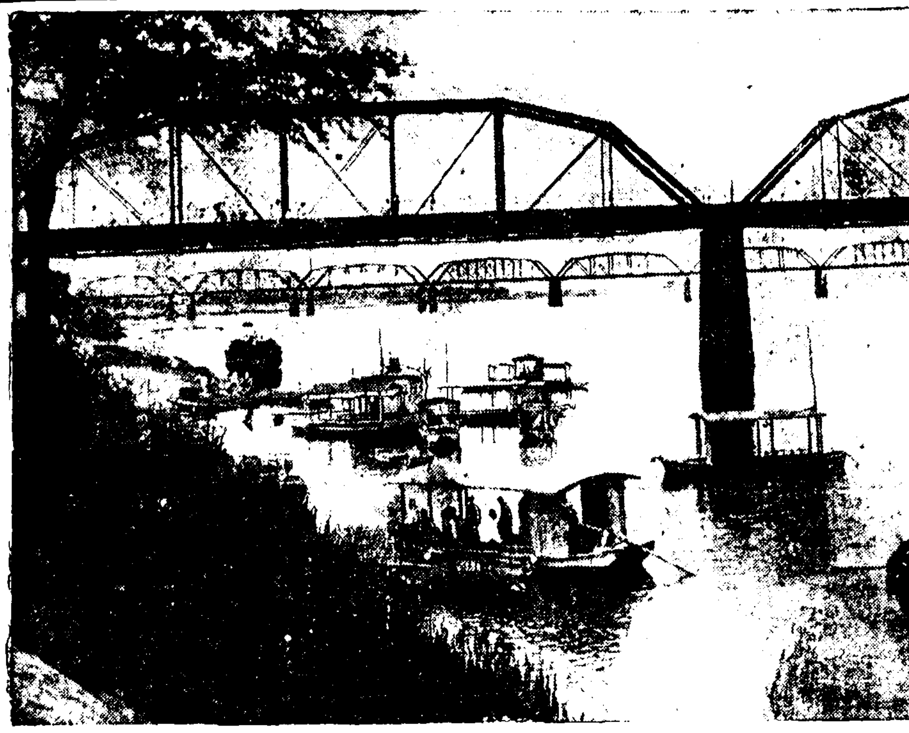
『백년해로』를하면 벌서 진부한말이지마는 원앙금침에 부부관계를맺는 결혼건수가 작년중에 조선인 十九만七천五백六十三조,일본인 一천六백八十三조 외국인三十五조,도합 十九만九천二백八十一조로 하로에 평균 五백四十六건씩이잇는셈이다 그리고 파경지탄(破鏡之嘆)을 당한 리혼건수는 九천七十七건으로 하로평균 二四,九건이 부부의관계를 끗는셈이며 그 전년과비교하면 八백九十二건의증가이다

三百名送局
二百九十名은釋放 즉결구류가 八十여명 平壤事件取調經過

【평양】 검사국에서는 十九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체 출근하야 이번 폭동사건의피의자취조에 분망하얏다 현재 수감되어잇는 피의자는 전부 二百五十여명으로써 취조가끗나는대로 매일예심과공판으로 회부되는 중이다 평양서에 十九일 현재 이사건의혐의자로 남아잇는 사람은 三十八명으로서 검거는 대체로끗난모양이다 총검거는 七백二十三명 그중 검사국송치가 三백四十六명 즉결구류가 八十여명 석방자가약 二백九十七명에 달한다 검사국에서도 상당히석방자가만흘듯하다 그리고 금二十일아츰까지 예심에회부된 사람이八十명 직접 공판에부친사람이 五十명인데 검사국에서는 취조를 빨리하야 오늘밤으로 대체의취조를 끗낼 작정으로 속속 처결하는터임으로 금일은예심과 공판에회부될 사람이 각각백명씩을 돌파할듯하며 래二十二일안으로 전부처결될터이라한다

高原被檢者 二十餘名釋放

【고원】 고원(高原)에서도 원부 청소년들이 소동을이르켜피검자백여명가운데검거를보게되엇스나 대부분은 이미석방되고 지난十八일에 또다시二十五명이 석방되엇다한다 그리고 현재남어잇는 八명은 송국되리라고관측하고잇다



◇사람을 호리는 漢江水 ‖어제 일요일에 박임‖

白熱化한府營運動 京電利益은果如何
◇이놀라운 폭리를 보라◇ 勿驚,年益二百萬圓

경성전긔,와사(電氣,瓦斯)의 부영(府營)문제는 아즉도 경전(京電)의영업긔한이박두하야옴을따라 점차로 구체화하기에일으럿다 경성부에서도 오는二十五일전후에 경성부회(京城府會)를 열고 부회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전긔와사부영에 대한의견서를 동회에부의하리라 한다 그의 결정여부는 아즉미상하나 四十만 경성부민의 대다수의 의견은 그의 부영을무조건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찬성자들로서도 또 그사업을 부영으로하면 과연예긔의 업적(業績)을 거둘수잇슬가 하는것은 아즉미지수로일바의 궁금히 녀기는바이다

그러나 경전의 과거의영업성적을보면 다음과가티 순리익금만이 一백九十六만二천二백六十九원,대정十五년도에는 二백三十八만八천三백五十四원……이러케해마다증진되어폭리를보고잇는것이다 이를 전긔(이는전긔수리를가르치는것)와 전차,와사등의업적을 년도별로 보면 다음과갓다

		電氣(動力)	電車	瓦斯	合計
大正十四年	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支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五年	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支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年	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支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三年	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支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四年	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支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五年	收入	四,〇一八,五四六	一,九三九,五四九	七一四,三一六	[illegible]
	支出	‖	‖	‖	‖
	利益	‖	‖	‖	‖

氣溫低下로 用水量이激減
작년보다 물을적게쓴다 금년은물걱정업다

금년七월은 례년에비하야 긔온이 비상하게 나려서 제일타격을 밧는것은 어름집이오 또 수도도 영향은 밧지마는 그반면에 용수긔근(用水饑饉)이 들 념려는업게되엇다 작년七월十五일의 수도사용량은九十六만九천四백립방피트에달햇섯는데 금년七월十五일은 작년에 비하야 수도전수도 만히 증가하엿슴에 불구하고 九十一만二천一백六十립방피트이엇다 경성수도가 一일최고 백만립방피트를 초과하야 一주일만가면 물이말라버릴터인데 요새가티 가기만하면 아모걱정이 업다고하는데 이와가티 물이적게 쓰워지는까닭은 물론 긔후가매우건천한 까닭이라고 한다

順天勞聯主催 親善演說會
警察이畢竟禁止

【순천】 전남순천로동련합회(全南順天勞聯合會)의주최로 조중친선연설회(朝中親善演說會)

男工은五十錢 女工은卄五錢
【一年休日은不過卄日】 可憐한그들의生活

그들의 로동시간은최고(最高)十一시간최저八시간으로 一일중에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겨우 十분가량되는 그것뿐이오 一년중에 휴일은평균 二十일내외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비된고역에 엇는임금(賃金)은 최고 一원八十전최저 二十전이 업는바는아니나 최저二十전이라는 박봉이 성년공(成年工)중에도 잇슴으로 성년공의평균임금은 겨우五十전내외에 不치 이에딸하서 유년공의임금은 평균二十五전가량밧게아니된다

專賣局의職工統計
卄歲未滿女工이五割
◇七월현재 전매국의 조사◇ 文盲이約三割을占領

七월현재 전매국에서 일을하는직공은 그수효가 二천八백四十二명이다 직공의건강상태는검진(檢診)인원 一천七백九十三명중 로동을해도 관계치안흔정도의 불건강자가 二백十九명(전검진수효의七분八리)으로 비교적 건강상태이다 직공의 년령은 남공(男工)은 二十六세미만이 五할八분八리 四十세미만이 二할六분,그리고 四十세이상이 八분七리 二十세미만이 六분二리 十五세미만이 一리이며 녀공은 二十세미만이 五할四분二리 三十세미만이 一할七분 四十세미만이 四분二리 十五세미만이 二분 四十세이상이 一분六리이다 그근무긔간은 남녀공을통하야 六개월미만이 二분四리 一년미만이 四분三리 三년미만이 二할二분三리 五년미만이 二할四분四리 十년미만이 一할二분二리로 十년이상은업다 직공의 교육정도는 남녀를통하야 무학자가 二할八리 소학정도의학교에 통학하든 직공이 五할七분二리 소학을 필한자가 一할八분一리 이이상이四분이다 치모하야 본서로 송치하는중이데 가해자는 일임하자백한다고한다

一圓強奪코저 親友를殺害
돈에 눈어두운 악마의범행 犯人은洪城서被捉

【홍성】 지난八일 오후세시경에 충남홍성군 광천면 옹암리(洪城郡廣川面瓮岩里)압바다스삼부에 시체하나이 떠잇는것을 발견하고 검시하여본결과 그는보령군천북면 신죽리(保寧郡川北面新竹里)에 사는 류일남(劉一男)(二?)으로 판명되엇다 일남은 그근처간사지막는 곳으로 버리를 갓다가 자긔집으로 돌아오려할때에 마츰 동리(同里)에사는 김긔석(金基石)(二?)을 맛나게되어 서로지난에 집을향하야 가는 도중에 일남은 술을만히먹은관계로 정신을차리지못함을 알엇다 전긔김긔석은 일남의 주머니에 돈一원이 들어잇는것을 알고 돈에욕심이나서 자긔의친우인 일남을 바다人물로 쓰러밀고 자긔집에돌아가서 돈一원을 쓰고 잇섯다 한다 광천주재소(廣川駐在所)에서 탐문하고 김긔석을 잡엇다

鮮光少年軍에서 赤貧者無料治療

시내종로六정목에잇는 소년군총본부(鮮光少年軍總本部)에서는 간부치료를열고 여름동안 일반소년을본위로 七월二十五일부터 八월二十일까지 한달동안 무료진찰과 시약을하기로하얏는데 적빈자로서 무료진찰과 시약을원하는이는 언제든지 총본부로문의하기를 바란다 한다

그리고 임원을개선한결과 다음과가티 개선되엇다

團長 李殊煥▲總司令長 方基煥 ... 源成▲司令長 洪泰成▲庶務金漸禎,尹乙 ...

◇휴지통

▲더운여름이다 어떤학생은 산으로 바다로 행락을하고 어떤학생은 귀향하야 계몽운동에 땀을흘린다 ▲어떤사람은 건강을 유지할만한 식음을버리고 어떤사람은 주지육림에 수화풀양중이걸려 개드탐을일삼는다▲서늘한대서 행락하는사람과 계몽운동에 땀을흘리는사람,릉라주단에싸며 해롭잔미에 배탈앓는사람과 조의조식에 심신을 단련하는사람이 어느편이 자긔몸과 사회를 위하야 리익을차취가▲조선인은 사회봉공심이 결핍하다고한다 조선사람이라고 특히 그러리야잇슬가마는 남보다 궁경에빠진처지에 잇는만큼 남에몃곱절되는 노력을하여야 되지안흘가 ▲부자가 천당에가기는 약대가 바눌구녕을 드러가기보다어렵다고 성경에 씨워잇다 ▲부자라고반드시 그런가마는 다수의 부자에게는 정문에 일침이되지안흘가 ▲수천금을드려 자가용 자동차를사고또수천금을앗기지안하야창부를 매드리고 큰거리를질주하며 화진을이르키는버공들의 심사가 어떠한고

스피드時代 交通事故激增
아프론더욱엄중취체 五割이自動車關係

최근시내의 교통사고건수는 점점증가하는 현상인바 이에대하야 도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이것을 방지코자 그원인을 탐구중이오 취체도더욱 엄밀히 하는중이라 한다 그러하야도 그성적이 량호치 못하고 교통사건의 五할四분이 자동차사고이라한다 작년六월말일 자동차사고의 총계가 一백四十二건이엇는데 금년동기에는 一백八十二건 임으로 四十一건의 증가이라한다 속력시대에 교통사고는 피할수업는일이라 하겟스나 다른나라도시에비하야 현저히 경성시내는 그건수가 만타고한다 이와타에 도보안과에서는 시내각서와 협력하야 교통취체를 일층 엄중히하고 속력위반과 원조사의 발전에 노력중이라는바 만약에 발견만된다면 엄중한처분을하리라한다

南海署活動 怪靑年檢擧

【려수】 지난十六일 일은아츰부터 경남 남해(慶尙南道南海)경찰서 형사대가 려수경찰서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시내에서활동하다가 서정(西町)에서 가장 집숙한 최석주려인숙(崔錫柱旅人宿)에서 괴청년두명을 검거하야 직석으로 남해서로 압거(押去)하얏다 사건내용은 극비에 부침으로 상세한 바는 발표치 못하나 측문한바에 의하면 모종의 중대사건인듯 하다 그청년들의 행색과 주소씨명은 려인숙 주인에게서 듯는바에 의하면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은 모자(帽子)도 쓰지아니하고 옷몸에는와이사쓰에 누른빗『레인코트』만입고 알에는 재스빗『양복바지』를 입고 누른『구쓰』를신은 경남진주(晋州)황상연(黃相然)(二?)이라 칭하는청년이오 종원으로보이는 사람은 역시『모자』도 업시 우에 거문빗『양복』에 검은빗『구쓰』를 신은역시 진주정육수(鄭育秀)(二?)라 칭하는 청년이라한다

麻雀
朝鮮內에限하야特別割引홈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麻雀莊

値下 斷行

弊院은開業以來旣十年을向하고 日日增加하는 舶來製品을輸入及販賣工場을擴張하야 一日이라도硏究를怠치아니하고 各位의德澤으로今日과如히隆盛되엿슴니다
恩惠를報키爲하야正價에二割五分을引下하엿사오니倍前愛顧하심을務望하나이다

京城南大門外
世富蘭偲病院眼鏡部
電話本局四三九五番 振替京城四四九〇番

체종환자여
새로발명한겡오—를쓰오
만일무효면돈을도로드리오

누구나 물론하고 대개 체증이잇는데 삼십년된체증으로 일본조선각대병원에입원도하고 여러치료를다하야도 안낫든체증이 오—박사가 신발명한 겡오—란약이 주약된분에 완치햇다 그러나신

이감사장이약효신효함을증명함

겡오—는경증에일원중증에이원이오 송료선금은무료대금이환은배다
◎만규성위장가다루 소화불량 설사 위괴양,위산과다증 위확장등의분은쓰시오
아도니 위하수증
京城西大門町二ノ八六 鋼聖堂 振替京城四九六〇 電話光化門一四番

朝鮮賣藥株式會社
령신환
第一 조흔滯症藥이오
炎暑! 陰欝! 吐瀉,霍亂가튼 惡病이무서운때 이런때일수록 령신환…… 常備합시오!
朝鮮賣藥 령신환!!
定價 普通 旅行用 家庭用
本舖 朝鮮賣藥株式會社

眼科專門 又華醫院 麗水港五町 入院隨意 院長 金希龍 電話二二番

就職 木工職工二十人無料敎授 後援 京城府崇仁洞二二 年齡自十八至二十五歲

八谷工場 大阪府八尾町 電話一〇四七番 平壤府 八谷支店
農工用 新엔마— 石油發動機 作庫豊富 製造直卸値 二마부터八마력까지 灌漑用 揚水 펌프

筆生 博文館 大阪大軌沿線 生駒電停北

平壤西門通 韓一醫院 內科 小兒科 花柳病科 醫師 韓箕亭 入院隨意 電話八〇

鎭南浦林檎豊作 二百萬貫收穫豫想

◇작년보다 二배이상에달해 日本方面販路擴張

【진남포】 진남포지방(鎭南浦地方) 과수재배업자(果樹栽培業者)들은 지난해 림금(林檎)대흉작으로 인하야 극도의 곤란을 바덧섯다

그런데 금년은 대풍(大豊)으로 총생산고 二백十六,七만관을 예상하는바 작년생산고 六十五만관에 비하야 二배의 증수를 의심업시 어들것이라한다

그러고 금년은 일본 청삼현(靑森縣)지방 림금이 흉작임으로 일본시장관계가 활발될것이며 가격도 작년시세보다 [illegible] 당업자들은 근심의 [illegible] 금은 벌서 성숙되어 八월경부터 적과(摘果)하기를 개시하리라한다

고로조속 리우영(李宇英)씨가 [illegible] 그러하야 반十시로부터 로조원전부와 [illegible] 쌍방이 한곳에 합석하야 타협한 결과 [illegible] 동시에 모든 문제도 해결되엿다

地主懇談會

【남천】 황해도 평산군청(平山郡廳)에서는 농사개량지주간담회(農事改良地主懇談會)를 평산군수 김명헌(金明憲)씨를 중심으로 아래와 가티 개최한다더라

七월十五일에는 개성부내(開城府內)에서, 七월十七일에는 [illegible]에서, 七월十八일에는 [illegible](文武公普校)에서 각각 개최하얏는데 [illegible]

二個月이나長霖 勞働者大困境

매일일해도 시원찬은데 高原勞働者進退兩難

【고원】 함남고원(高原)에는 [illegible] 각 빈민구제공사 [illegible] 로동자들이 [illegible] 확장되어 가고 잇스나 품삭 [illegible] 팔려 모혀드는 로동자는 [illegible] 난관에 막다르고 잇다 이제 그 리유를 들으면 매일 [illegible] 四五十전이 [illegible] 十三四시간로동에 [illegible] 근두달동안이나 장마가 계속하얏슴으로 로동할날이 적엇섯다

統營新市開設 當日懸賞써름

【통영】 통영읍(統營邑)에서는 시장이 협착함으로 항상 시민들은 불편을 늣기여오든바 금번 길야정매축지(吉野町埋築地)에다가 [illegible] 백여명의 공동시장(共同市場) [illegible]

尹相殷 張世長 朴當相

貧民救濟工事 귀포도로개수

【귀포】 [illegible]

全州赤痢猖獗 적리병이 점점만연되어 十七名中四名死亡

【전주】 [illegible]

鶴南에染病 교통은차단

【홍원】 [illegible]

進水에도赤痢 사망자도잇다

【진영】 [illegible]

避暑客運全 防疫水에 假驛사지設置

【삼방】 [illegible]

轢死者發見

【김제】 지난十一일 오전六시十一분에 [illegible]

悲觀한酌婦 自殺코저投江

【강경】 [illegible]

一歲愛子遺棄 男便에게버림밧고 社會의罪? 個人의罪?

【상주】 [illegible]

惠山青年釋放

【혜산】 [illegible]

郡廳移轉에 群仙民憤慨 반진적가구

【군산】 [illegible]

中人끼리亂鬪

【라남】 [illegible]

市區改正한다고 建築을不許 五개월동안을 살고나와 洪原火災民의怨高

【홍원】 [illegible]

洪原에누대

【홍성】 [illegible]

興南電話全通

【흥남】 [illegible]

公州市民總會

【공주】 [illegible]

貧民戶稅代納

【고창】 [illegible]

出生과死亡別

【리수】 [illegible]

咸興童話大會

【함흥】 [illegible]

貧民戶稅代納

【합덕】 [illegible]

進永에小火

【진영】 [illegible]

毎日二十錢이 二萬四千圓

一년二개월만에이러케 平壤貯金組合發展

【평양】 二백八명의 조합원이 [illegible]

統營電燈料 개정된것여차

【통영】 [illegible]

◇定額燈料金

種別	舊料金	新料金
五燭光	.七六	.七二
十燭光	.九六	.八七
十六燭光	一.二○	一.○七
廿五燭光	一.五二	一.三六
卅二燭光	一.八五	一.六五
五十燭光	二.四五	二.二二
八十燭光	三.○○	二.八二
百燭光	三.八○	三.四○

東海北部線 通川驛開通 二十日부터

【원산】 [illegible]

	三等	二等
新驛		
通川驛	八十錢	一圓五十二錢
松田	一圓	一圓六十六錢
庫府	一圓九錢	一圓八十錢
通川	一圓十錢	一圓十六錢

全南勞聯 設置를禁止

【광주】 [illegible]

假醫生被逮 사람죽이고잡혀

【남해】 [illegible]

洪原郡守談

[illegible]

金剛山探勝 유림여주최로

【김해】 [illegible]

慶州探勝延期

【울산】 [illegible]

八十老婆重傷

【부여】 [illegible]

青盟集會禁止 時局不穩타고

【의주】 평북의주읍(義州) [illegible]

運搬業拒絶타가 賃金引上코解決

三전五리가 六전五리로 罐詰工場과新昌勞組

【북청】 [illegible]

西大田驛運動 천도국에교섭

【대전】 [illegible]

積立金請求訴

【전주】 [illegible]

金美滿期出獄

【공주】 [illegible]

產兒하야壓殺 경찰에잡혀

【예산】 [illegible]

千六百連署로 代表上京陳情 신총독과 총감에 또진정 問題의於之屯水組

【사리원】 [illegible]

地方雜信

羅南 [illegible]

沙里院 [illegible]

安城 [illegible]

消息

會合

젊은그들 (二三六)

金東仁作 李象範畫

일월상존 (一六)

[illegible]

第四回 湖南庭球大會

◇日時 八月 [illegible]日
◇場所 潭陽公立普通學校코-트
◇參加 七月二十七日까지 (無制限)
◇主催 潭陽 [illegible] 俱樂部
◇後援 朝鮮, 東亞兩潭陽支局

湖南個人庭球大會

◇期日 八月二日
◇場所 高敞高普校코-트
◇申請 八月一日까지 (每組六拾錢添付)
◇主催 高敞高普, 在京同窓會
◇後援 東亞日報高敞支局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二十六日
◇場所 扶餘公普校運動場
◇主催 扶餘 [illegible]
◇後援 東亞日報扶餘支局

南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一, 二兩日間
◇場所 [illegible] 運動場
◇申請 [illegible]
◇主催 在京 [illegible] 學生會
◇後援 朝鮮, 東亞 [illegible] 支局

謹告

[illegible]

任記者 [illegible] 昭和六年七月十一日 東亞日報社楊平支局
任記者 [illegible] 昭和六年七月十一日 東亞日報社芙江分局
依願解職 顧問 [illegible] 昭和六年七月十一日 東亞日報社保寧支局
任顧問 [illegible] 依願解職 昭和六年七月十一日 東亞日報社鎭川支局
任般山駐在記者 [illegible] 昭和六年七月十一日 東亞日報社順川支局

ClibPDF - www.fastio.com

香山遊記 (三)

佛影臺

李殷相

萬里秋光晚 千山落葉飛 虛閑無一物 看盡雲歸歸

日照香山諸品靜 風飛仙樂亂雲鳴 晚來吟倚欄干遍 詩思飄飄興更清

漢詩

榴花

京城 李承晶

選外佳作 茂亭 鄭萬朝 考選

漢詩募集

題 「繡毬花」

押 「寒」(俗名) 五言律或七律隨意 期限 八月五日

어린이와 어룰과

발육이 왕성한 때임으로 자외선이 절대로 필요

습진과 땀띠 소손데는 비누질을 말것 (1)

大學病院小兒科 李先根

천동과 위험방지

이러케만하면 위험치안코 저즌것이 제일금물

가, 피부의위생

—성질—

—비교—

寫實主義批判 (十一)

—作品製作에 關한 論綱—

韓雪野

五、表現樣式에 關한 問題

—일듸—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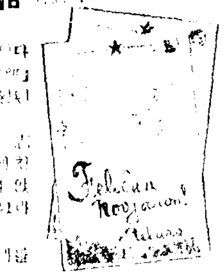
◇新生 七八月合號 定價十錢 振替京城三九八番 發行所 京城府外...

에스페란토講座 (16)

白南奎 述

第一編 文字와 發音

【4】文例의 總括



Ho, la vento!

Esperanta poŝtkarto venis.

Verdaj steloj brilas

Feliĉan novjaron!

Paca, granda homo

Nia Majstro. Viva Zamenhof!

Ni kantu la Esperon!

La horo jus finiĝis. Adiaŭ.

主婦之友

夫婦和合の祕術號

大評判の三大附錄 がついて僅か五十錢の八月號

第一附錄 子供服眞夏用新型の型紙十二種贈呈

この實物大の型紙通りに裁ちさへすれば誰でも最新流行の眞夏用の子供洋服が作られるので大評判です。

流行女兒服の型紙つき作方 ◇三歲の女兒服…四五歲の女兒服 ◇六七歲の女兒服…八九歲の女兒服

新型男兒服の型紙つき作方 ◇二三歲男兒服…四五歲男兒服 ◇七八歲男兒服

洋服下着型紙つき作方 ◇女兒洋服下着 ◇男兒洋服下着

婦人ハウスドレスの型紙

手縫で出來る 夏の新型男兒服三種 夏の流行女兒服五種の作方

第二附錄 日本全國旅行大地圖

本社が一ケ年の日子と巨費を投じて完成した大地圖で安くも五十錢の價値充分

債券五千圓贈呈の大懸賞

▲夫婦和合の繪入奧樣讀本 ▲夫婦圓滿の祕傳發表會 ▲夫婦和合の祕術四十八手 ▲良人の祕密に惱む妻の告白 ▲戀人の死靈に取殺された伯爵令息

手輕で美味い 夏の野菜料理五十種

夏向の新手藝品十種の作方

吉屋信子女史作の新傑作小說 長篇小說 彼女の道

子爵令孃から女優へ 入江たか子 淚痕記 石上欣哉

評判小說 相思樹 牧逸馬 評判小說 聖なる乳房 山中峯太郎 赤穗の義士達 新婚旅行

▲夏の傳染病を治した民間療法 ▲肺病を全治した私の經濟療法 ▲(母の立志傳)宇垣朝鮮總督の母堂 ▲(此母を見よ)苦難を突破した母

▲夏の化粧法の寫眞畫報 ▲肥つた人の夏の着附畫報 ▲機械を使ふ美顏法畫報 ▲夏の流行日本髮寫眞畫報 ▲夏の盛花と投入寫眞畫報

▲母乳の無い赤坊の育て方座談會 ▲美容と護身の方法寫眞畫報 ▲夫婦和合の祕術寫眞畫報 ▲健康本位の中流向模範住宅

勸業復興 債券割增金未拂番號發表

當籤してゐながら受取人のない忘れられた顯運が此の不景氣時代に千三百萬圓もある!!

大附錄つき 五十錢 (送料五錢)

東京神田駿河臺 振替東京一八〇番

主婦之友社

恩給 山宇商會

受驗準備

노-신 됩니다

東亞日報中學制講義請求所

ClibPDF - www.fastio.com

產業

夏季果園行事(三)
摘果、被袋、施肥、殺菌殺蟲劑와 其處理法、病蟲害의 豫防驅除

大阪園藝 金俸植

(다) 時期와 方法

[illegible]

(나) 苹果와 洋梨의 施肥法

[illegible]

(가) 梨의 施肥法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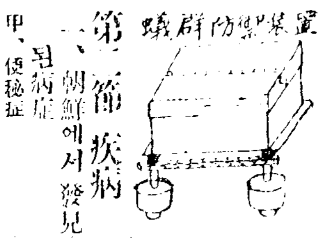
養◇蜂◇講◇話 (四)(二)
咸鏡、江原、黃海、全羅等地에 가장 적당한 朝鮮의 養蜂業

三山養蜂園 成周復

丙、驅除及豫防

1、驅除法

[illegible]



置巢防群蟻

2、防禦法

[illegible]

3、治療法

[illegible]

第二節 疾病

一、朝鮮에서 發見된病症

甲、便秘症

1、原因

[illegible]

2、症勢

[illegible]

實驗

[illegible]

貯水水量不足 廢農될 狀態
조합비는 단보六원五十전 細潭水利組合에

【괴산】 충북괴산군 감물면 [illegible] 水利組合은 작년十一월에 [illegible]

合	植付面積	步合	
水組	七八○町	九九	一、臨時大會를 臨時에 召集할 事
水組	三六	七○	一、組合長 任期 滿了된 人員
水組	一二	八五	一、組合維持에 對한 根本方針
水組	九五	八五	一、組合保管 資金
水組	六五	八九	一、移 [illegible] 舟帳

鎭興酒造組合 理事會開催

【진주】 [illegible] 임시대회 [illegible]

成北水利組合 水稻移秧六割

【괴산】 하북십수리조합(成北水利組合)의 [illegible]

特產인 苧麻布로 南海產組認可
서자유동되어 금월에 제긔

【남해】 경남남해(慶南南海) 산업조합(產業組合)의 [illegible]

鳳岡消組 收益千餘圓

【여주】 [illegible]

저(楮)로 만든 謄寫用美濃紙
리상적 지질에 도달해 慶州產組製造販賣

【경주】 경북도내에서 생산되는 강동(江東) [illegible] 그 량과 질에 잇서 전국적으로 [illegible]

酒類製造에 獨占코 暴利
高貴小賣人陳情

【고흥】 [illegible]

三東機 慶南矯風會서

【미조】 경남남해군 삼동면 [illegible]

高原火田農村 探訪所聞所感(二)
火田農村의 生活眞相

高原支局 金炳湜

半裸體 火田婦女 낫은 보랍이 무엇

[illegible]

共販에 왓다가는 醫藥家의 狀世談

[illegible]

油類粉面의 秋波 뒤따르는 「累」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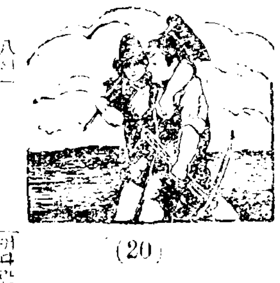
農況消息

長城農作物 減收는 難免 長霖과 괴怪候

【장성】 전남장성지방(全南長城地方)에는 장마로 농가에서는 매우우려중에 잇다함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illegible]

震災前後 (20)

鳴人 作 靑田 畫



[illegible]

忠武公遺蹟保存問題로 ◇追慕의 結晶體誠金遝至

一金三圓也	長城郡北二面	李鍫錄
一金一圓七十二錢也	寶城郡北面	金濟河商店
一金九十八錢也	瑞興郡道面	李亨根
一金一圓也	殷栗郡長連面	白賢華
一金三十錢也	同	白廻璇
一金五十錢也	潤川郡潤川面	金宅奎
一金二十錢也	同龍岩面	鄭成福

右金宅奎以下二人分八十錢中送料二錢除하니實入金七十八錢

一金五十錢也	蔚珍郡蔚珍面	劉文鍾
一金九十錢也	同竹邊里	林源植
一金二十錢也	同邑內里	林敬弼
一金二十錢也	同	張元五
一金十錢也	同	張德均
一金十錢也	同	崔元植
一金三十錢也	載寧郡邑內鄉校	李奎華
一金三十錢也	同	奇淳七
一金二十錢也	同	李鍾伯
一金二十錢也	同	林奎憲
一金二十錢也	同	朴齊淵
一金二十錢也	同	李當鉉
一金二十錢也	同	李行根
一金三十錢也	同	崔亨變
一金二十錢也	同	郭斗壽
一金十三錢也	同	崔豈
一金二十錢也	同	崔鍾熙
一金二十錢也	同	奇鶴鎬
一金二十錢也	同	奇善基
一金二十錢也	同	李源芳
一金二十錢也	同	梁柱天
一金二十錢也	同	李文浩
一金三十錢也	同	姜鳳國
一金二十錢也	同	梁尙鎬

右李奎華以下十八人分五圓四十錢中送料九錢除하니實入金五圓三十一錢

一金五十錢也	富川郡大阜面	朴炳觀
一金五十錢也	同	尹德衡
一金五十錢也	同	金完洙
一金二十錢也	同	崔羽萬
一金十錢也	同	朴根榮
一金十錢也	同	金生均
一金四十錢也	同	洪範杓
一金二十錢也	同	張基鴻
一金二十錢也	同	林容善
一金五十錢也	同	金智夏
一金二十錢也	同	朴炳贊

右朴炳觀以下十一人分二圓四十錢中送料四錢除하니實入金二圓三十六錢

一金一圓也	安州郡萬城	安孶凌
一金一圓也	同	鄭泰吉
一金五十錢也	同	文炳興
一金五十錢也	同	李正德
一金五十錢也	同	金永洙
一金五十錢也	同	金仁寬
一金五十錢也	同	張基澤
一金五十錢也	同	楊炳榮
一金三十錢也	同	文鍾奎
一金十錢也	同	安栢植
一金十錢也	同	安炳植
一金十錢也	同	安載八
一金十錢也	同	安柱建
一金十錢也	同	梁信赫
一金十錢也	同	安致植
一金十錢也	同	金□福

一金十錢也	同	李贊五
一金十錢也	同	金永三
一金三十錢也	同	金元湜
一金三十錢也	同	林浩
一金二十錢也	同	金華永
一金二十錢也	同	金省三
一金二十錢也	同	金案洙
一金二十錢也	同	文炳善
一金二十錢也	同	朴曰璟
一金二十錢也	同	李昌寶
一金二十錢也	同	李贊寶
一金十錢也	同	安塔植
一金十錢也	同	金玉潤
一金十錢也	同	金春涉
一金十錢也	同	卓芝玉
一金十錢也	同	崔龍彬
一金十錢也	同	盧孝信
一金十錢也	同	徐臣民
一金十錢也	同	無名氏
一金十錢也	同	李京煥
一金十錢也	同	李東華
一金十錢也	同	金貫一
一金十錢也	同	金大旭
一金十錢也	同	吳奉涉
一金十錢也	同	車用俊
一金十錢也	同	全草松
一金十錢也	同	白連化
一金十錢也	同	朴景淳
一金十錢也	同	梁義興
一金十錢也	同	文學洙
一金五十錢也	同高石	李道熹
一金十錢也	同	金文鉉
一金十錢也	同	金炳基

右安[illegible]以下四十九人分十四圓八十錢中送料二十錢除하니實入金十四圓六十錢

一金二十錢也	神戶日本朝鮮藥局	薛東錯
一金二十錢也	同勝山町	杏珣九
一金二十錢也	同北町	대보鄭
一金二十錢也	同	盧元得
一金二十錢也	同	金判開
一金二十錢也	同	挪震甲
一金二十錢也	同	安又甲
一金二十錢也	同	金仁奉
一金十錢也	同	李九琪

右薛東錯以下九人分[illegible]圓九十錢中送料十八錢除하니實入金[illegible]

一金九十錢也	延白郡松逢面	黃一均
一金五十錢也	同	辛在文
一金五十錢也	同	丁昌燁
一金一圓也	同	朴容元
一金五十錢也	同	俞太平
一金九十錢也	同	安聖元
一金五十錢也	同	朴成東
一金五十錢也	同	趙炳混
一金九十錢也	同	申仲君
一金五十錢也	同	李泰永
一金九十錢也	同	李在九
一金一圓五十錢也	同	趙敏衡
一金五十錢也	[illegible]湖南面邑洞里	金黃龍
一金五十錢也	釜山府草梁町	朴尤松

今日計 三十八圓八十八錢也

累計 一萬二千五百三十三圓四十錢也

保存會累計 一千七百六圓五十錢也

總計 一萬四千二百三十九圓九十錢也

讀者評壇

記者의重任性
特히地方記者에게敬告함

金泉 李山

새朝鮮의 新聞記者이며 現代文化의 代辯인 新聞 그新聞記者에게는 참새입시 웅지기는 社會에 對하야 銳利한 批判力과 深奧한 洞察力과를 要한다 더욱히 今日의 우리 新聞에 잇서서 그 必要를 느끼게한다. 웅지기고잇는 諸現象─ 社會性 如何한 角度에서 觀察할것이가는 個個의 新聞記者의 主觀과 立場에 依하야 形과 色을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벌서 우리의 環境과 [illegible]

乃至社會에 對하야 絶對로 無關心할수업는 時代는 벌서 아니다. 各地方에 잇서서 여러가지 內容이 다른 이時代의 新聞記者의 가장 知覺하게 批判하는 것은 오늘 新聞에 [illegible] 新聞記者 [illegible] 아니며 [illegible] 時代에 對하야 公正한 [illegible] 것을 가지고 公正한 解剖와 [illegible] 最高的인 人格者가 [illegible]

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런대 거개 地方의 支局이 마치 新聞이나 아닌 機關에 [illegible] 記者란 무엇인가 [illegible] 지못하는 名義[illegible] 인지 [illegible]

모러 進化發展에서 落伍되라고 하겟지마는 [illegible] 에 잇서서 [illegible] 永水 잇케될 念慮가 [illegible]

아 綿密한 當面의 現實問題에 關하여 把握吟味하며 [illegible]

洪景來傳 (五)

玄相允

環境과 周圍의 事情이 이럿한때에 景來가 司馬試에 應하엿든 것이다 勿論 結果는 落第. 것과가티 「不中」이엇다 이며 及第는 「名鄕」에 안사서 理로 권張을사서 試驗칠은 實의 某某宅 새書房님네들 이엿다 이것을 본 景來의 그에는 閃電이 發하엿다 그런데 이때에 景來의 아페는 依例히 무갈래 길이 橫在하얏으니 一은 「自暴」로 向하는 길이오 다른하나는 「崛起」로 가는 길이엇다. 그러나 熱血에 넘치는 景來는 決코 남과가티 兒女子모양으로 自暴自棄하면서 運命을 詛呪하거나 膽丈夫모양으로 殘敗的 徐退에 엇기 爲하야

[illegible] 心中을 吐露한것은 없엇다 이러하고는 景來는 東으로 金剛山에 [illegible]

우에잇는 것은 決斷바우라는 대답이엇다 [illegible]

천道가 업는것이니 한蒼大望을 成就하면 不道가 風靡할것을 이 어리다가 잇나, 그래서 爲先 心服된 마한 同志를 에서 求하려하엿다. 그런으로 平安道 或은 互利를 잡으며 或은 書齋에 謀議하엿나 그러기에 當時 道內의 寺院이나 書齋치고 景來의 足跡이 닷이지 아니한 곳이 업섯다고 한다

그러다가 庚申年間에 嘉山郡 倚山寺에서 한사람을 만나니 이것이 禹君則(名翰文)이다. 君則은 本來 泰川郡사람인데 官衙記錄에 依하면 禹家의 孽孫子이라한다. 景來보다 六七年長이되나 當時에 景來는 十一歲假量이오 君則은 二十歲이엇다. 君則이 卞略에 非常하야 經史子集에 通하고 諸術과 天文地理와 兵書兵法을 通曉하엿다 亦是不平不滿이잇고 所懷가 非凡하야 平日에 諸葛孔明을 自期하엿다. 그러므로 科擧에 寒이업고 見識을 地師에 假托하야 列邑을

士入大望 [illegible] 서로 後期를 言約하고 헤어젓다.

그러하얏다가 그翌年인 辛酉年에 또다시 淸川江에서 맛낫다 이때에 비로소 景來가 君則에게 向하야 擧事의 必要性과 可能性을 말하되 「亂極當治」니 이가티 政治가 腐敗하고 不公平하고 百姓이 困困하고 饑饉을 바드면 한곳이 반드시 蜂起할사람을 내이고 百姓이도 此所謂 「天時 萬夫和의 時機」의 安民의 「主」를 求하는것이다. 오 또한 現今政府는 人和를 어든 政府가 아니오 城郭의 所有나 비록이 敢히 名論의 物이며 福祖하다할지라도 人民과 他派의 論色들은 坐視치안으며 歡喜하게 맞을것이며 또한 是本日久하고 名色으로 五衛營이나 勇士幾十名으로 되나야도 能히 潰散시길수잇다」는 것을 말하얏다. 그리고 他道에도 不少하다는 말

[illegible] 江界延邊의 [illegible] 四郡等地에 [illegible]

四、交結群雄

1、國內視察

自此以後 十年間은 景來가 同志를 糾合하기에 專力하든 時期인데 爲先 國內各地를 視察하야 必要를 感하고 집에서는 山中으로 讀書하려가다고 말하고 그야말로 竹杖芒鞋로 몇卷冊子를 차서지고 飄然히 집을 떠나엇이다. 요前에 한마듸 記入할것은 그때 마침 景來의 父親이 世上을 떠난일이다. 미러 心中에 自期한배가잇는 景來는 이事件을 機會로하야 自己의 父親를 里社後에 擇定하고 甲民에게 廣告하되 이것은 大地니 不遠에 大貴이 發할것이라고 하얏다. 이것은 녯날秦末에 大楚興陳勝王」이라고 叢祠에 숨어서 鳴하든 陳勝의 故智를 假作하던 陳勝의 故智를 행한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里民들은 그것도 工夫하야 及第하고 仕路로 登進할것은 미든것이오 決코 逆賊의길노 나감것은 민지 안은것이다.

이리케 집을 떠난 景來는 外方으로 나가 爲하야 或은 風水 或은 地師를 自稱하며 或은 山中寺刹로 讀書하려 다닌다하면서 各地를 遍踏하얏는데 城近傍을 詳細히 살피엇다. 이때에 또한 攜紹가 잇스니 때는 春秋이라 어떤날 城內文人名武들이 賓家집 子弟들이 北漢山子장을 갈다고하는 말을 듣고 景來도 가히 따라갈일이 잇엇다. 白雲臺

奴顔婢膝로 阿諛求容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景來는 北으로 會寧鍾城까지를 돌려본 後에 西으로 나려와서 黃小兩[illegible] 두길을 버리고 다른 方面으로 다른길을 찾게되엇으나 이길은 곳前人이 일즉이 路아보지 아니한 全然생길이니 끈 「反抗」으로 가는 길이다. 이심을 發見한 우리景來는 微笑를 띄고 빙그레 冷笑하면서 주먹에 힘을주엇다

山까지와 南으로 光州까지와 遊歷하면서 무슨 機會를 엇보든사람이다. 서로 多日同留하면서 [illegible] 道를 坊坊曲曲이 遍踏하얏다 그 中에도 平安道를 仔細히 視察하고 하며 이가티 國內를 歷覽하고 보니 各處의 人情風俗이며 要害險阨과 道路物產이며 人物이는 子오 富者가 누구며 勢力잇고 勇猛잇는 사람이 누구인것과 各地人民의 疲弊疾苦며 그中에도 人民의 不平과 怨恨과 悲憤이 부엇인것을 눈아페 顯然하게 掌中에서 보는것가티 明瞭하게 되엇다

이러하고는 무엇인가 [illegible] 그러므로 科擧에 [illegible]

2、禹君則과의邂逅

이가티 各道를 遍歷한 景來는 謀事의 策源地를 平安道에 求하기로 하엿다. 그理由는 平安道가 自己의 出生地나 人情風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잇다는 點보다도 當時의 人民가진것이 不平을 가지고 더욱 가장 不平을 가진 것이 小大 兩사람에서 지나

法의 理로 前 期 에 [illegible] 이 될 [illegible] 것을 하 [illegible]

是가 衆多 [illegible] 錯綜 [illegible] 를 自期하 [illegible] 게 [illegible] 에 道의 [illegible]

[illegible] 機會를 엇보 自己의 同志인 鄭始守(一名濟民)라는 眞人이 一邊으로 胡兵(滿洲의馬賊)과 連絡하며 또 一邊으로 多數의 壯兵을 探募하며 或은 古代英雄의 理致를 말하며 或은 假作하야 [illegible] 으로 [illegible] 하야 [illegible] 으니 그 [illegible] 謀士로 [illegible] 그 [illegible] 君則을 [illegible] 의 謀事를 [illegible] 있다(君則供辭)

海外 新文藝紹介……(1)

居殺者 (二)

어니스트·헤밍웨이作 夢甫譯

「그래 이친구가 똑똑하다는게야. 촌혼지구게요?」 「친구가 무얼생각하고 잇는 것이다. 어떻게 모양이데」 하고 맥스가 닉크를 보고 말하엿다. 「그래 그 말하엿다 」 「그래 맞기도 어지간히 말하엿다. 그 쯤은 게하고 한 엇지 에 아니 똑똑한 친구 의 아루 인지가 불어 엇지이?」 「아 맥스 에게 물엇다.」

「카운터 저편으로 가서」 하고 「구하고 한것에 가서게서」 하고 조지는 「왜 그러세요?」

「너는 가 불어보앗다.」 「무 친구 가는게 조흡건 그래」 하이 말하엿다. 검둥이 쌩은 어이 모이신을 틀어

하고 그는 불럿다. 「잠깐만 이리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검둥이가 들어왓다. 「왜 그래?」 하고 그는 물엇다 카운터 아페 잇는 두사나이는 그를 힐끗 보앗다. 「애, 검둥아 거기 그대로 잇

「쌩」 「스럽니(一種의 笑)」 을 부어 안으로 열리는 쏘ー즈는 부엇인지 몰라 하고 검둥이가 할 더리고 무슨일을 하시겟나?」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똑똑하아이나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실 것을 「검둥이더러 이러나오래」 「그 사람인데 무슨일을」 하고 그는 쏘ー즈를 보고 만하엿다. 「이애하고 말다툼하고잇을제 액이 그에게 말하엿다.

「이애가 애기를 여자 같은 사나이가 [illegible]」 「자네가 애기를 여유로 벗나가」 하는게지」 「그래 우리가 여기서 [illegible] 하고 그는 말하엿다 「그아 네가 더 잘 알지」 「여기가 어딘줄 알고 당신들 이 이러는거에요?」 「이러 나오래」 「왜 그 려세요?」 「이려 나오래」

요 「검둥이」 「부여 에는 누가 잇나?」 「검둥이라나?」 「검둥이」 「검둥이 잇는 사람」 하고 엠이 말하엿다. 「무어 그려시는거에요?」 하고 조지는 물엇다 「그런데 엇지」 하고 닉크는 바라보앗다. 「그」 「쏘ー즈가 둘이 이에 잇는것이

엇다」 「그 사람의 [illegible] 엇다」 하고 그는 말하엿다 액이 검사 하고 「검둥이하고 우리 귀둥이하고 두사람은 어디로 나가 가잣」 하고 그는 말하엿다. 「이 사람 [illegible] 하게 의 생각이 그 사람 [illegible] 려하나 이 카운터에 잇나 보다」 「그 사나이 계 [illegible] 나 그는 쏘ー즈를 보고 [illegible] 그 사나이가 그는 문을 다 보고 이 안으로 들어 [illegible] 엇지 을 하고 이 가는 [illegible] 에 의 [illegible] 보 [illegible]

紙上病院

隨聞隨答

[問] 小生은 四歲된 幼女兒이 올시다. 昨年부터 大便을 보면 쉬 가 되고 [illegible] 에는 肛門에 [illegible] 날리고 [illegible] 한밤中 [illegible] 때에는 肛門으로 부터 [illegible] 니다 小兒科醫院에 診察하야 病名은 幼蟲이라 합니다 [illegible] 細히 下敎하야 주십시요(城興 답답生)

[答] 그것은 幼蟲이 아니라 蟯蟲이라고 하는 寄生蟲이 올시다 夜間 就寢時에 直腸內로부터 肛門周圍에 産卵하러 나오는 것이올시다. [illegible] 一日間 服用한後 [illegible] 위에 特別히 바리지 마시고 [illegible] 하야 보십시요

[問] 저는 二十二歲의 女子이올시다. 昨年前에 生産한후 [illegible] 지 [illegible] 합니다 各地病院으로 다니며 洗滌 其他方法으로 治療를 [illegible] 하엿스나 [illegible] 業을 [illegible] 니다 ... 肛門周圍에 [illegible] (大邱病院小兒科李先生) 에 手數를 쓰어 再우는것도 좃습니다 (大邱病院小兒科李先生)

[答] 아마도 무슨婦人病이 잇슬 것입니다. 그러나 婦人되시는 분이 生産치못할때는 民婦人病이 잇습니다 [illegible] (中國安東縣 [illegible])

[問] 저는 二十二歲된 女子올시다 只今으로 約四個月前에 結婚하얏는데 前月부터는 月經도 못치고 男便과 性交後에는 [illegible] 하오니 [illegible] 주시옵소서 (黃州 讀者)

[答] 規則的으로 잇던 月經이 [illegible] 妊娠된 것입니다 [illegible] 하야 주시옵소서 [illegible] (大邱病院産婦人科許信)

出版日報

七月十四日(火)

朝鮮文

▲全北靑年創刊號 印牧▲奇聞奇談 世界讀本 文友▲全州金氏世譜 金鎭禹

日本文

▲朝鮮遞友第二號 高橋榮太郎▲朝鮮社會事業七月號 佐藤芳彌▲朝鮮警察官殉職史 青柳綱太郎▲朝鮮土木建築協會報第二卷第四號 田村耕通▲京城文部月報七月號 紅露和本▲熊津通報第六卷第八號 池田製築六▲碧鮮第十二卷第五號 山內成賢▲朝鮮之鐵道第二卷第七號 觀田恒雄▲便益保內帝國四號 本山正則▲土木建築公論第一卷七號 藤本通▲黎明七月號 吉德倉政▲朝鮮官鑛協會會報第卅九號 稻村勝▲金山龍報第七號 稻田省三▲東亞食料品新報七月號 高野敬三▲京城觀信所報第七一九號 川下部是勝

七月十五日(水)

朝鮮文

▲我等七月號 申明均▲東亞第三號 李昌根▲京鄕雜誌第七二三號 楊秀春▲日新第四號 エス、エム、エス、テビス▲桂氏學友第四號 先利富▲同和藥報第三十八號 閔根▲法院要集(附一、公文書式) 鄭時錢▲基督青年의寶生活 班禹道人▲古의國金銀銅貨幣及華錢名 監督學兒▲丹陽禹氏世譜一二三 禹準淑▲牙山翻氏族譜 卷全 翻照 頓

日本文

▲汗變の朝鮮第四號 中山貞雄▲慶北警察報七月號 戶田正路▲生命の水第七十四號 鈴木高志▲鄉の縛七月號 直松覺修▲柳乃生第三號 北市喜多男▲土之燃ユル第一號 金子健三郎▲釜山彙報第二十號 浦田省三▲朝鮮土木建築報第五十號 竹村武士▲光州有隣會第六卷第六號 永井貞▲世論第二號 本吉清一▲普通學校修身書卷三 總督府▲慶尙南道社會事業施設概要 慶尙南道

日本評論社全鮮

全鮮士を席捲する爆發的賣行！感謝！感謝！

特選名著半價提供

時事問題講座

社會科學叢書

財政・經濟

半額圖書目錄

期間中現品御買店に備附けてあります自由に御請求下さい

京城 大阪屋號書店 同 韓城書房 同 日韓書房 同 金至誠堂書店 同 彰文堂書店 同 東光堂書店 同 東京堂書店 同 高山書店 同 群強書堂 同 勉強堂書店 同 慶松堂京城店 同 文光堂書店 同 金剛越書籍部 同 三越書籍部 仁川 日進堂 清州 八カマタ商會 大田 鈴木書店

期間 自七月十日 至七月廿九日

讀書大サービス

註文殺到し應酬に遑なし、後愈々五日！

法律 社會 政治・外交 讀本シリーズ 其他

明治文化全集

吉野作造 全二十四卷

編輯代表 法學博士

第一卷 皇室篇 第二卷 正史篇(上) 第三卷 正史篇(下) 第四卷 憲政篇 第五卷 自由民權篇 第六卷 外交篇 第七卷 政治篇 第八卷 法律篇 第九卷 經濟篇 第十卷 教育篇 第十一卷 宗教篇 第十二卷 文學藝術篇 第十三卷 時事小說篇 第十四卷 翻譯文藝篇 第十五卷 思想篇 第十六卷 外國文化篇 第十七卷 新聞篇 第十八卷 雜誌篇 第十九卷 風俗篇 第二十卷 文明開化篇 第二十一卷 社會篇 第二十二卷 雜史篇 第二十三卷 軍事・交通篇 第二十四卷 科學篇

菊判箱入平均クロース特製百八十頁 一冊四圓(特價二圓)

現代法律全集、現代產業叢書、自然科學叢書、小說創作、隨筆、紀行、新聞等百數十點。この外特に最新刊著「鶴見祐輔著『現代米國論』、福永恭助著『排むあめりか』、石井満著『女人極樂鄉』」の三點追加。右何れも定價の半額の需に應ず。全集類は分賣法學全集缺本は本社にて責任補充す。

主催 日本評論社 後援 全鮮書籍店

京城 大阪屋號書店 日韓書房 現品配給所

群山 石見屋商會書籍部 全州 大正堂書店 木浦 文盛堂 大邱 玉村書店 馬山 福屋書店 釜山 博文堂 海州 金港堂 平壤 文鮮堂 義州 文明堂 新義州 玉置支店 咸興 ウエキ書籍部 元山 大谷商店書籍部 清津 中屋書店 羅南 北光館

極地航空探險史 (2)

勇膽輕快한北極征服

「아문젠」씨 보다도 먼저 드러간 ◇美國人「버어드」氏

◇……◇

비행기로 실패한「아문젠」이 다음에 생각한것은 비행선에 의한 극지정복이다 씨는「이태리」해군의 반경식비행선 N一호에 눈을두어 그배의 건조자「옴벨트·노빌레」대좌와 교섭한결과 두사람간에 타협이 원만히 성립되어N一호를「놀지」호라고 개칭하고 북극탐검에 필요한 각반의 개장을 베풀게된것이다「놀지」호는 총용적一만八천五백입방메돌 전기리三백四十八피트、노피七十九피트 폭(幅)六十二피트로서 二백五十마력의 발동기三개를장치하고 시속평균五十마일로서 七十一마일까지 속력을낼수잇게하얏다

◇……◇

개장한결과 적재량은 一만가로로 증가하고 그가운데서 七천키로까지 연료를 사용하면 천천히 四천三백마일은 계속하야 날르게되어잇다 특히 개장의결과「놀지」호는 필요가생기면 경긔구가되어 一월간 체공이되게되엇다 탐검의 자금은「이태리」정부가 三분의二를부담하고「린컨·엘스와스」씨가六분의一、그나머지 六분의一은 신문과영화회사와의 특약에의하야 어든것이다

그러나 이계획의 발표를보자 세상사람은「놀지」와가튼 비행선으로 북극을 탐검한다는것은꿈거리하고 비난하얏스며 신문은 북극빙상에 추락한「놀지」호의 승조원이 독일의큰비행선에게 구조를 밧는만화를 내어 그계획을 비소하얏다

그러나「놀지」호는「이태리」국민의 열광적 전송리에 一九二六년 四월十일「로마」를 출발하야 五월七일에는 북극정공의 긔지「스핏츠베르겐」의「킹스·베이」에 도착한것이다 五월十일 저녁때에는 모든준비가 끗난七톤의 가솔린과 八백 폰드의 석유를 실엇다 이것으로 천긔가조흐면 四천三백 마일은 날르게되는것이다

◇……◇

식량은 一천백폰드「페미칸」초코레트、크랏카、밀크、「커피」등 승조원 十六명이 五十일을 지나기에 충분하도록실코 다시 불시착륙하야 빙상 려행을 계속할때에 쓰기위하야 텐트두개、썰매한개、모피 주머니 스키와 총과 탄약을 준비해다 그리하야 배는드되어 五월十一일 밤 조건을 기다려 외긔적풍도에 나선것이다

그런데「놀지」호가 떠나기전 四十八시간전에 가튼킹스·베이에서 출발하야 벌서북극의 처녀공을 정복하야 일약국지 탐검의 제一인자가 된쾌남자가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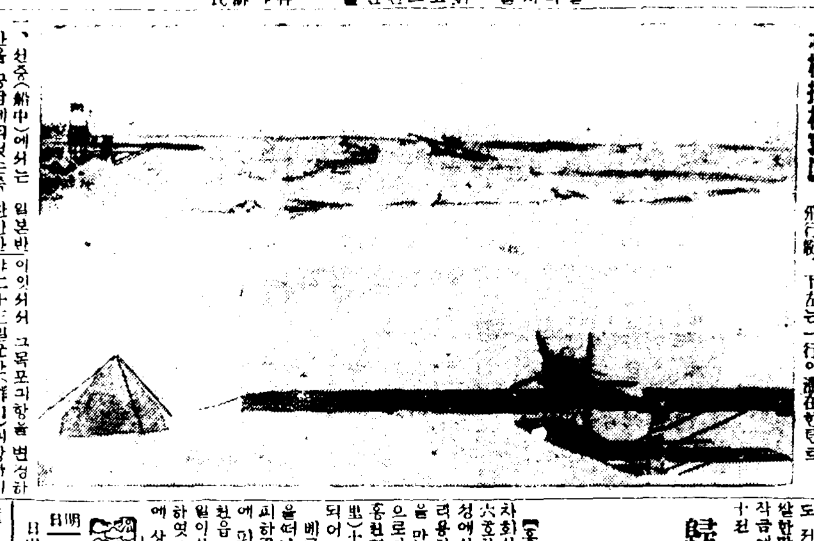
그의 이름은「리챠드·이브린·바드」라고한다 그는 미국해군의 출신으로 뒤에는공군(空軍)에 몸을던저 구주대전에는 공중전사로서 혁혁한무공을세운사람이다

◇……◇

四월二十九일「놀지」호가아직「레닌그라드」의 근처「가치나」에 잇슬때에 일행 五十명과가티미국긔선「산·차고」호로「킹스·베이」에 드러간 그배에는 와드중위는 五월九일「그러니지」표준시 오전령시반 조종사「푸로이드·베엣트」씨와가티二백마력「라이트」식 발동긔 三대를 장치한「혹카·단렙」긔를 조종하야「킹스」만 눈싸힌곳의 항주로를 거쳐용감한 폭음을 소리를내며「극놀」목표로 날러갓다 리륙(離陸)이 二천피트와 고도를날려 한시간후에는 벌서「스핏츠베르겐」의고봉을 뒤로두고「덴센」「페아리」등 북극 탐검계가의 고투의 자최를내려다보며 출발후 저우 八시간반 즘「그러니지」표준시五월九일오전九시二분에는 드되어북위九十도의 상공에달하얏섯다

◇……◇

일즉이「페아리」는사반세긔의 처참과七회의 실패후겨우「극천」을어덧다 그런데「바드」와「베넷트」는겨우반일에 흰서리날리고 흰눈차인빙원의처녀공을 상쾌하게정복하얏스니인류의지혜는 그리하야완전히공간을초극한것이다 그들은오전九시十五분 고수를돌려 무사히「스핏츠베르겐」에 귀환하얏섯다



北極探檢寫眞 北極의氷原上에不時着陸한아문젠의飛行艇、下左는一行이滯在한텐트

寄附金支拂拒絶로 民刑事訴訟提起

과중한다고 공언하고 내지안는 元山李富豪三萬圓

【원산】수년을두고 원산인사의 화제로되어나려오는 당지부호 리병간(李秉幹)씨의 三만원긔부문제는 요지음원산 고아원(元山孤兒院)락성식을 압두고 수증자 긔증자간의 의견차이로 결국 법정의심판을밧게되엇다

리병간씨 三만원사건의 유래를 약술하면 지금으로부터수년전 리씨가 모사건으로인하야원산 형무소(元山刑務所)에 수감되어잇슬때부터 사회사업에 유의하얏섯슴인지 출감하게되자 원산사회사업에다 一금 三만원을 긔부하겟다는 선언을 하게되어 이래각방면에서 이돈을 인용하려고 운동하든중 원산불교포교당(元山佛敎布敎堂)을 중심하야 조직된 원산고아원 긔성회에 긔증하기로 락착되엇다

三만원수증을밧게된 고아원 긔성회에서는 즉시일본인청부업자와 원사거축공사를 六천원 예산으로 상량식을 거행한다음 三천원 락성식을 필한즉시三천원 지불하기로 게약하얏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상량식을거행하게되엇다 이에 리씨에게 三천원지구를 하게되니 리씨는 고아원 긔성회서 원사라든지 또는 고아를 수용하야 외형상원산에도 고아원이 잇다고 인정하게되어야 三만원을 긔부하되 우선년리자 六분계산으로 一천八백원식 리식만 내겟다고 하엿지 내돈으로 집지으라고하지아니하엿다는 리유로 거절을 하게되니 청부업자 일본인은 수천원의 손실만 보게되어 고아원 긔성회간부와 리병간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긔하얏스나 일푼도 밧지못하엿다

문제가 이러케됨에 공사는중지되고 상량식까지하게된 건물은 날로부패하야가게되엇다 이에 원장 배순호(院長裵淳鎬)리청선(李正善)외 수씨는 필사적 노력과 푼전의 동정금을모아저우 원사락성식을 얼마전에거행하게되엇다

가티 귀치안케됨을몰랏든지 일수간만 시일을주면 그간잘생각하엿다가 회답하겟다고 한후지금와서는 단연히 三만원긔증을 거절하엿다

이에동원에서는 긴급리사회(緊急理事會)를十七일개최하고 다음과가튼 결의를 하게되엇스나 수십년을두고 복잡다단하던 리씨와 三만원사건은 법정의신세를지게되어 일반은 그하회를 비상이흥미잇게주목중이다

一、決議事項

一、李秉幹氏의三萬圓請求事件을 確實히 履行케하기 爲하야 院長裵淳鎬의 名義로 民事訴訟을 提起할일 院監 李正善氏 名義로 刑事告訴를 提起할일

濟州視察申請을 廿一日까지延期

【본보 인천지국주최 모집】 參加團員의注意할要項

【인천】본보인천지국주최제주(濟州)시찰에 대하야 참가희망자가 만하서 상당히성황을이루게되엇는데 참가단원의 참고사항은 다음과갓다

一、다른지방에서 참가하는 단원의 편의를위하야 신청기일을二十一일까지연긔한것

一、二十二일 오후二시에 인천룡강정(仁川龍岡町)二〇번지 본보 인천지국에출두하야 회비잔액을 내이고 시찰단원증을바들일

一、제주가서 한나산(漢拏山) 등산시에 소용될옷하나 겨울내외와 외투를 준비할일

一、제주가서 정구(庭球)경기를하겟슴즉 그취미가잇는 단원은 운동복과 운동구를 준비할일

一、선중(船中)에서는 일본반찬을 공급케되엇슨즉 찬반찬이필요한분은준비할일

木浦寄港을 群山으로變更

【인천】본보인천지국주최 제주(濟州)시찰일행은 二十二일 오후 인천을출범하야 二十三일에 목포(木浦)에 기항(寄港)할예정이엇든바 긔선에 부득이한사정이 잇서서 그목포긔항을 변경하야二十三일군산(群山)긔항하기로결정하엿다

長湍麥價慘落 農家經濟窮境

【장단】경긔도 장단군(長湍郡)지방에는 재계가 극도로 공황하야 일반농가의 경제가 날이 심각함으로 인하야 농촌의 참경은 말이아니라는데 최상가상으로 태산가티 밋고잇든 대소맥(大小麥)의 시세가 참혹하게도 저락되어 종래에 보리며두살한말에 一원二十전하든것이 작금에와서는 六十전 소맥은四十전 미만으로 행매되니 이가은 시세로는 제일바료(肥料)갑도 못됨으로 도저히 살아갈도리가막연하다는데 보리살한말에 六十전미만이라는것은 수十년이래처음이라한다

歸鄕學生滿載한 自動車가顚覆

서울서 홍천가는 자동차 女學生二名이重傷

【홍천】지난十八일 내선자동차회사(內鮮自動車會社)경四八六호차운전수미원(梶原)은 경성에서 공부하다 하긔방학을 리용하야 고향에 가는 녀학생을 만재하고 경성을 떠나 홍천으로가던중 오후五시경 홍천군홍천면하오안리(洪川面下吾安里)十여척 베루에서 추락전복되어 二명의 중상을내엇다한다 베루에서 질주하다가 마츰홍천을떠나 양평방면 가는차를맛나피하라다가 추락전복되어 차체에 파손되고 중경상을 당한 홍천읍 채금남(蔡今南)녀학생은 二주일이상 치료를 바들 중상을 당하엿고 그외녀학생도 면상과코에 상처를 내엇다

前敎員은 大部分退職

公普로變한 康底通明普校

【고원】고원군명보동학교(康底通明普通學校)는 지난十一일부터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로변경되어 당일개식하엿지거행하얏다함은 긔보한바이다 지난十六일 학생에게 학력시험을치룬후 十七일에는 입학식을거행하얏다

동명학교가 공립학교로 변경되는동시에 전에잇든 교원은한사람만을남기고 전부퇴직케되엇슴으로 그들六、七명실직교원의생활이 문제라한다

더구나 재정곤난으로 인해七개월간이나 봉급을지불치 못하얏스며 퇴직금도 주지못할것갓다한다 이케러사회를 소집하야 이일을 토의할터이라는데 리사회의결의가 어떠케될지 실로주목된다한다

그날그날

明日 七月二十一日(火曜) 六月七日(丁丑) 日出前五、二七 沒後七、五三

天候

京城 二十一日 曇一時晴 十九日最低 二〇、四 十九日最高 二六、五

月出後一一、一三 (滿潮) 入前一一、二三

仁川 前〇九、二〇 後一九、四五

鎭南浦 〇〇、五〇 一三、二〇

라디오

【二十一日 火曜】午前十時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十時四十五分料理種目、日用品時勢▲正午時報、뉴ー스▲午後零時二十分落語▲一時家庭醫學講座婦人病에就하야朴谷駿▲二時十分家庭講座▲三時四十五分뉴ー스、公示事項▲五時四十五分라디오體操、職業紹介事項、今夜프로그람▲六時半라디오學校▲七時뉴ー스公示事項明日프로그람▲七時半趣味講談▲八時浪花節▲八時半常盤津▲九時連續講談▲九時二五分氣象槪況(各地大氣象)、時報▲九時四十五分雜歌와流行歌(日打鈴、兩山道、二八靑春歌、린괘필이、平女歌、春歌、新長恨歌、아리랑、漢城奔將李飛麒鄭明珠바이오린助奏 金川本

大自然의懷中에 登山과臨海

夏休와各學校의種種計劃

男性的의여름。生長의여름。이철을利用하야 各種學校는 夏期休學을한다。이四五十日을 或은 山에올라山嶽의 自然에接하며 或은 바다에臨하야 水泳과 캄핑生活等으로 快味를 맛보는『섬머ー스포ー츠』의 씨ー즌은 바가 바로지금이다。今年의夏休를 利用하야 登山과 臨海의 발길게는 今廿日을 前後하야 一齊히 열렷스니 各校의今年프로그람은 어떠한가。

登山과水泳部 妙香山과元山에

徽文高普校 에서는 歷史先生金鎭泰氏 引率알에 今二十日夜十時四十分 京城驛發 北行列車로 事達에向하야 史話당북한 妙香山登山과 史的探求를 行할터인데 一行은十二名가량이오、同校水泳部에서는 金東灝氏 引率알에 二十五名이 明二十一日夜十一時車로 元山에向하야 松濤園에서 天幕生活을하면서 水泳講習을行할터이라한다

二高水泳部一行 今夜元山으로出發

元山松濤園을 해마다 마러노코차저가는 京城第二高普水泳部에서는 恒例에依하야 今廿日午後十一時 京城驛出發列車로 元山에向하야 明廿一日부터同月末까지 十日間 松濤園에서 水泳講習을行할터인데 一行은 五十六名의多數이며指導及引導者는 桑垣氏外三人이라한다

二週日間講習 元山松濤園에서

中央高普校 에서는 十七日夜車 同校水泳部一行 四十名이 金泰漱氏 引率알에 元山에向하야 그곳松濤園에서 第二回水泳講習을 七月末日까지行한다 한다

基督靑年會의 南東海岸巡行隊 其他여러가지計劃

中央基督敎靑年會의 各部의 今年여름登山 或은 臨海、旅行의 프로그람은 이러하다

◇少年部 에서는 八月初부터 仁川月尾島에도 一週日동안 天幕生活을 할터인데 一行은約二十名가량이며

◇靑年會 에서는 約十名이 元山松濤園에 가서 二週日동안 例年에 依하야 캄핑生活을 할터이다

◇濟州島行 同會의 例年名物인 自轉車旅行은 今年에 이것을 中止하고 自轉車旅行隊를 組織하야 去六月二十日 群山에 到着、前번에 自轉車로 旅行한 終點 群山海岸線을 起點으로 全北全南의 兩道 西南海邊 거치고 돌아 濟州島를 거처 다시 麗水에 上陸、예서부터 南海岸을經由하야 東海를 거치고 關東八景을 고루고루차저 九月中에 元山에 到着하야 歸京할 豫定이라한다

◇斥候隊 에서는 來廿三日 郊外湛流里를 월신지나 楊州郡 山林에 三日間캄핑生活을 할터이라한다

陸上競技籠球 野球等合宿練習

培材高普校 에서는 水泳과登山의行事를 今年中에中止한대신에同校野球部에서는 蓬萊町에合宿하고 每日貞洞同校球場에서 夏期練習을行한다는데 코ー취로는 成能華、金永奐兩氏이며、陸上競技部에서는八月一日부터 合宿하고 京城運動場에서 夏季練習을 行한다 그리고 籠球部에서도 合宿하야 練習을行하기로되엇다한다

九州에遠征한 城大硬球軍大勝

京城帝大庭球部(硬球)九州遠征團一行十名은 主將林英植君 引率下에 去十日京城을떠나 十三日福岡에서 九州帝大와對戰途中에 降雨로中止하고 十五日 熊本에서 熊本醫大와 一戰을行하야 複式에三組、單式에六組全勝하얏다 스코어ー는 다음갓다

(城大)		(熊大)
○林英植	6—2、6—1	村 田×
○沼 田	6—3、6—2	野 村×
○李鍾錫	6—3、6—2	中 里×
○飛 永	6—3、6—0	山 內×
○杉 浦	7—5、6—2	横 山×
○中 西	6—3、6—2	土口井×
【複式】		
○(李鍾錫 林英植)	6—4 6—2	(野村 村田)×
○(鄭夏澤 沼田)	6—3 6—2	(山內 中里)×
○(杉浦 飛永)	6—3 4—6 3—3	(土口井 横山)×

京日野球爭霸 中央豫選第一日

京日野球爭霸戰中央豫選은昨廿日午前十時半 京城球場에서 開始한바 第一日에第一回戰績은다음과갓다

府廳23A專賣3 午前十時半(球)土谷、專賣先攻으로開始、投捕(府)小野原、成田—佐藤(專)金範山、小泉—趙乙範、閉戰十二時四十分

得點 專200000100=3 府30561223A=22A

龍鐵俱13A仁鐵4 午後一時卅分開始、(球)佐武(鐵)北山、田中、投捕(龍)藤田—後藤(仁)杉岡—畑

得點 仁000000400=4 龍01142005A=13A

仁川15 鐵工2 同四時開始、六時卅分閉戰、審判(球)李榮敏(鐵)田代、池田、投捕(仁)池成龍 安錫昌(鐵)辻、上野—井上

得點 仁2000042430=15 鐵0000000020=2

李舜臣 【20】

春園 作 靑田 畵

상주와충주의싸움(一)

도체찰사 류성룡은 신립(申砬)을 불러서 계책을 물엇다。

신립은 리일과 아울러 당대 명장이엇다。

「리감은 무신이 아니니까、승만한 장수를 가려어서 리일의 뒤를 돕게하시는것이 량책이지오」

하고 신립은 자긔가 나서고십은 뜻을 보엿다。

「적군을 막을 방략이 잇소?」

하고 류성룡이가 무르매、신립은 자신잇는듯이 웃으며、

「당대명장 신립이 적군을 못몰지르면 살아서 돌아오지는 아니하겟소」

하고 장담하엿다。

류성룡은 그 뜻을 장하게 여겨서 곳 병조판서 김응남과 함께 왕께 뵈옵고 신립으로 도순변사를 하이시기를 청하엿다。

신립은 독자도 과연하시려니와 수군 권폐론자다。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극히 악하게획을 세우는데 가장 힘 많이 한 사람이다。제승방략이라는것은 일본군과 싸우는데는 바다에서 막지말고 륙지에 상륙시켜놓고 싸우자는것이다。그리유는 일본군은 수전에 익으니 수전으로는 당하기 어려우즉 륙지에 끌어올려 놓고 우리편에서 능한 륙전으로 싸우자는데 잇다。

이 제승방략이라는것이 조정에서 결정되매 의주목사 김여물(金汝岉)은 적을 바다에서 막을수는 없다 하더라도 륙지에 나리는길에도 막지아니하고 내지로 끌어들여서 싸운다는것이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 하고 분개하다가 묘의를 비방하엿다는 혐의로 금부에 갇히기까지 하엿다。

신립이 도순변사의 명을 밧아가지고 길을 떠나려하야 왕께 하직 숙배를 할 때에 왕은、

「경은 무슨계교로 적군을 막으려하나뇨」

하고 물엇다。

이에 대하야 신립은、

「념려없소。적이 용병할줄을 모르오」

하고 아뢰엇다。

「무엇을 보고 적이 용병할줄을 모른다 하는가」

하는 왕의 두번째 물음에、신립은

「적군이 부산에 나리는 길로 내지로 들어오기만 힘쓰니 외로운 군사를 끌고 깊이 들어가서 패하지아니하는자가 없소。이런것을 모르는 적군이니 두려울것이 없는 줄로 아뢰오。소신이 재조 없사와도 불출순일에 적을 평정하겟사오니 상감 염려 부리시오」

하고 극히 쉽게 대답하엿다。

왕은 못마땅히 여기는 빛으로、

「변협(邊協)이 매양 이르기를 왜가 가장어렵다 하거든 경의 말이 어찌 그리 쉬우뇨。삼가라」

하고 손소 보검을 신립에게 주며、

「리일이하로 명을 좇지아니하는 자가 잇거든 이 검을 쓰라」

하엿다。

왕은 신립을 보내고 그의 경솔하고 생각이 깊지못함을 근심하야 여러번 변협(邊協)이 없음을 한탄하엿다。

신립은 빈청에 나와 령의정 리산해、좌의정 류성룡、우의정 리양원등에게 하직하고 바로 계하에 나리려할 때에 웬일인지 신립의 머리에 쓴 사모가 땅에 떨어졋다。신립은 땅에 떨어졋던 사모를 다시 쓰고 의기양양하게 길을 떠낫으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불길한 징조나 아닌가 하야 실색하엿다。

이하 광고

小品 避暑日記

七月〇〇日

——歲月은빠르기도하다、이旅館에 온지도 벌서사흘이나된다 살빗도相當히 검게되엿스니 海邊에나가도큰기침할수잇다。午後水泳하고도라오니S孃에게서葉書가와잇다、모래弟氏를데리고놀러온다고、그녀까지헤엄을배질하며놀내나줄가 커덕베또헤엄치고왓다스트로ー크에는 메우自信이 잇서친다

七月〇×日

——아츰에일어나니、눈이충시압흐다 별일업것지하고 海邊에나갓더니 모래에 비치는해빗헤 눈이쌔지는것가티 압흠으로 즉시도라왓다。

旅館집婦人에게이야기햇더니 鹽水와모래에返照되는햇볏에눈이압흐게되는것은[illegible]라하고 당치도안케추워준다。

에ー참화가난다、밤안에서속을태이고잇노라니主婦가이것을눈에너흐면낫는다고「大學目藥」을갓다줌으로 상자를 떼고보니 그속에「大學洗眼藥」이란白錠劑가드러잇슴으로 그것을 더운물에 풀어눈을씻엇이 씨처眼疾을업새고나서「大學目藥」을발넛더니 氣分이아주조라 來日아츰에는 곳나흘것이다 S孃이오는데 햅도못치게되면큰일이다。

七月〇△日

——산듯한아츰!、눈은말장이낫다、거울을보와도피셧던것은말가케업서젓다。

主婦가

「그것보시오」

하고、自己가곳처준것처럼큰소리한다。

停車場에S孃을마중하러갓다 K君이가러와서 좀 자미업스나 그래도 단연히깁부엇다 쵸코레트를선사로가저왓다。

今週의카네마이야기를듯고

「지금곳집에가구십다」

라고햇더니

「아이、참변덕일세」

하고 놀려먹는다 그런뜻으로 말한것안인데……

名譽恢復할作定으로『大學目藥』의效가非常하다고가르켜주엇더니『누구도다ー아는걸새삼스럽게주속이야』

하고、또우슴거리가되엿다

암만해도不利한걸오늘은 바람이심하고파도가잇서바다에가지안코二人이海邊을散步하고도라왓다。

(M 生)

新刊紹介

◆眼疾이야기◆

==醫學博士岡崎源治郞氏著==

누구던지물으면안될眼疾의智識을平易하게敍述한것、萬人必讀의良書로推薦하고십다(大阪市北濱一丁目參天堂良書頒布會에 今月中에申込하면無代進呈한다더라)

脚氣 각기

脚氣 각기

進呈說明書

三共藥品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비타민B의世界的始祖

1. 各型의脚氣及乳兒脚氣治療와豫防에
1. 小兒의發育不良及一般榮養障碍食慾不振에……
1. 惡阻及姙婦、産婦의便秘에……
1. 病中及病後恢復期에잇는분들에……

粉末、錠、注射液等各種이有함

東京·臺灣 三共株式會社 大阪·京城·奉天

銀價座談會 (二)

果然銀價는漸騰?

出席者氏名

【仲買人側】 李錫治、李忠根、鄭鎭台、崔炳柱、朴奎植 【代理人側】 白南哲、朴東試、金泰裕、李根浩、權寧深、白貴明、崔致昊、朴海申、高錫範 【客人側】 李潤載、崔昌憲、金漢治、崔鳳基、卽命稷、白天端 【本社側】 沈載河、徐範錫

【白南哲】 勿論 銀自體에關한部分을 먼저檢討한다면 銀은許多한題材와 威脅을 밧고잇는것이事實이올시다 再昨年 金解禁當時에 銀은 日本의金解禁을 一階段으로 安定帶를 지으려라고 생각하얏든것은 完全히失望되고 其後繼續的暴落을 現出하게된것은 銀自身이 이미貨幣의位置를잃고 一種의商品化한것은 繼續한것이올시다 그러하야 中國에對한 列國의貿易狀態는 委縮固定되어 中國을市場으로하는 各國의生産業者는 銀價의 暴落과 가티 一續破産의域으로 沒落하게되어 其中於 段中國에輸出하얏든 自國의商品을 再輸入하야도 採算이되는 程度에까지 이르럿든것이올시다 그런外다에 列國은一齊히 銀價暴落防止에 苦心하얏스나 別로好結果를 엇지못하고 도리어 印度의平和回復과同時에 印度人의輿論이 銀本位復歸에 集中되자 銀의 人氣는 多少回復한바잇섯습니다 이것을보면 銀價暴落에對한 人爲的防止策은 何等効果를 엇지못하고 다만銀의商位復活을 [illegible]

印度가온곳에서 銀을다시正貨로쓴다면 濫發의 增加와가티 銀의 實物로서의 生命이 復活될리 아니지안을 銀價는 비로소 現在의 [illegible] 歐價에서 多少向上할더이 世界人의 愛金熱은 再擇하게는 아니하얏습니다 그러나 世界의 不景氣가 深刻하야지는데따라 銀은 向方업시 低下되엇습니다 그러면 世界의不景氣는 어느 程度에까지 이르럿느냐? 이것을보면 참憂慮할니다 物價가生産費以下로 低下하고 말엇습니다 米、絹을비롯하야 各種物品이지오

【白天端】 現今資本主義經濟의 餘地업는 委縮은 決코偶然한것이 아니올시다 이原因을簡單히말하면 歐洲大戰當時 列國은 許多한人命은 勿論 許多한財貨를 非生産的方面에 消費하얏습니다 그리하야 大戰當時에는列國이 米國으로부터 莫大한戰債를 엇다가 軍需製造에만 消費하얏기때문에 直接人間生活에 必需品인 諸種物價는 生産縮少로 因한關係와 資本缺乏으로 因하야 非常히 高騰하야 物價는 實로 百파 一센트에 達하얏습니다 그러나 이百%의 物價는 人氣를 米國이 戰後에 列國에서 바더드린 戰債를 放出하지아니하고 物價가 低落함에에는 關貨人氣 米國에 [illegible] 二十%加味한 物價인故로 其後 物價가 低落함에에는 關係로 世界資本主義國家의 金融資本이 萎縮되는 同時에 所謂世界의 不景氣 卽 不況이 出現한것이 올시다 [illegible]

全朝鮮移秧 九割八分!

慶北全南續不良

【廿日現在報告收集中】

今年度水田移秧狀況은 지난十日現在로서 第二回調査發表가되엇스나 다시二十日現在로서 第三回의移秧狀況을 各道의報告를總合中으로 數日中에發表할터이며 各道의報告를 通하야는 거의九割八分에 達할모양이나 慶北全南의兩道는 依然히移秧成績이 좋지못하다

京畿道管內에

螟蟲이發生한다

驅除困難의狀態

京畿道管內에서는 今年이例年보다 氣溫이 低下한外에 肥料用以六萬一千七百二十餘町의 [illegible] 螟蟲이發生하야 더욱 驅除에 努力中이나 容易히 撲退치 못하야 非常히 憂慮하는바 此際의 關係로 今年의稻作은 作年과가튼 大豊作을 바랄수업는 모양이다

全朝鮮叺檢査

上半期中成績

【總督府調査】 昨年十一月부터 今年四月까지의 六個月間叺檢査成績은 生産檢査數는穀用叺千六百八十萬 千五百二十六枚 肥料用叺七十二萬五千二百十八枚 合計千九百三萬五千九百四十二枚 搬出檢査數는 穀用叺二千四百三十萬三百二十四萬 肥料用叺一萬四千百四十四枚 合計二十四萬

金組理事長會

二十日로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全朝鮮金融組合理事長會同이 열니엇는대 日程諸問事項等이 알에와갓다

▲第一日(七月二十日午前十時로부터) 訓示、諮問事項、答申

▲第二日(同二十一日) 總督府提出事項協議 財務局長 指示

▲第三日(同二十二日) 總督府會提出事項協議

▲諮問事項

(一)昨年度實施한 所屬組合業務實地調査의 實績에 徵하야 特히改善할必要가잇다고認하는 事項에對하야 具體的指導方針을 指示함일

(二)金融組合의 長期貸付에關하야 다음의事項을 考慮할可否에對한意見(가)長期貸付에 根抵當의方法을 認할일 (나)長期信用貸出의方法을認할일 (三)財界의不況 特히 米價暴落의 組合事業에 波及影響과 此에對하야 取할 措置에對한意見

▲總督府提出協議事項

(一)金融組合의 任受金 利率引下에關한件 (二)新設組合에 對한 經費補助에關한件

奉天票

拒絶에嚴罰

◇省政府에서

【奉天支社發】 最近商取引에奉天票의 使用을 실혀하는傾向인데 이것은 金融에 만흔惡影響을미칠것이라고하야省政府當局에 서는 今後商取引에 奉天票를 拒絶하는사람이잇스면嚴罰에 處하겟다고訓令하얏다

八千四百一圓으로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生産檢査에는穀用叺八十七萬五千七百四十三枚의增加、肥料用叺八十七萬二千八百八十三枚의減少、穀用叺五百四十九萬二千五百九十四枚의減少요搬出檢査에는穀用叺三萬七千百二十七枚肥料用叺一萬七千三百五十三枚의減少이다

日本과朝鮮

關稅統一이必要

各國障壁도此點

高橋拓務省書記官談

稅關長會議에 出席次 廿日來京한拓務省書記官高橋周一氏는 朝鮮에온 用務에對하야 알에와가티 말하얏다

今日에 거의日本과가튼 關稅障壁을맨드러 朝鮮內에서 各國의 關稅는 增徵을하는 形勢인데 一面에는 關稅를 撤廢하지는 困難하다는 이번 朝鮮에 온用務는 卄二、三의 兩日에열닐 稅關長會議와 卄五六兩日에열닐 財務部長會議에 出席하라는것이다 朝鮮의 關稅는 實際와理想이 매우距離가멀다 特히 歐洲大戰의結果는 小國이생겨 그나라가 모다關稅로 外國品의輸入을 막는狀態로 一般貿易을 阻害함이 큰事實이다 그런데이것을 어떠케 分해協調하야 統一을圖함이 매우必要하고 나는 各國의關稅하면 조흠가함에對하야는 各國의 意見을 말하고 最近에 歸國하얏을뿐도 어려운모양이다 會議가 끗난 後으로는 이번의會議에 依하야 北鮮方面을視察하고 八月上旬에는 中心이되지 모르는 世界인 歸任할豫定이다

朝鮮內春繭時勢 (十八日殖産局發表)

地方名	月日	種別	最高	最低	取引數量
鎭城	七、一四	白繭	二五二	一四四	一三石
熙川	七、五	同	二四〇	一九二	七石
北靑	七、五	同	二六五	一一九	六一七貫
城津	七、五	同	三七〇	一五八	三二二貫
寧邊	七、六	同	二五二	一四四	四一九石
北靑	七、七	同	二五四	一八五	四一〇石
城津	七、七	同	二五八	一七二	四〇一貫

京城物價指數

六月中狀況

京城府內六月中穀類와其他의物價都賣價指數가 알에와갓다

品名	名柄	單位	價格	指數
正租	五錢	百斤	[illegible]	[illegible]
玄米	㊂三等	石	[illegible]	[illegible]
白米	一等	同	[illegible]	[illegible]
外米		百斤	[illegible]	[illegible]
滿洲精粟	海城公	同	[illegible]	[illegible]
大豆	龍山	石	[illegible]	[illegible]
小豆	同	同	[illegible]	[illegible]
大麥	吉	同	[illegible]	[illegible]
小麥	國	同	[illegible]	[illegible]

日本對外貿易

中旬出超五百萬圓

【東京二十日發電通至急報】 七月中旬日本對外貿易大藏省發表는 (以下單位千圓)

輸出額 二八、九七一
輸入額 二三、七五四
差引出超 五、二一七

東京大阪市場

朝鮮米의格付

◇決定이된內容

東京、大阪米穀取引所에서는 今年八月發會新稻(十月限)로부터 新米建(昭和六年産米)이되어 그格付를 決定하얏슴으로 東京鮮米協會支部에서 十八日 알에와가티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에 入電이 잇섯다 (日下에 規準이 不明하나 今年一月限에 對比한것이다)

大阪米穀取引所

▲同 ㊄西鮮在米種은据置▲㊄㊂는十錢上▲㊄人、㊄大、㊀三道銘는二十錢上㊀ 道는小北、小南、成南의銘이다▲㊀三十錢上▲㊉小、㊉小四十錢上▲三等、四等의差는 六十錢各種日도 十月限은二十錢上▲一月限은十錢下▲二、三月限은十錢下▲이곳으로부터 (一)各種日도 三十錢格上 (二)三四等의差를 四十錢으로 하고 兩市場의 規準은 一月以後의格下를中止함을希望하얏다

東京米穀取引所

▲㊉十錢下▲㊅無、等㊉㊉는据置▲㊉㊀㊄의銘는 十錢上▲㊄는十錢上▲㊉는多摩錦으로 五十錢上㊂는 四十錢上▲三、四等의差는 西鮮米六十錢 其他는七十錢四月限外지格의 變化가업다 ▲이곳에 大阪과가티(一)三十錢格上(二)三四等의差를四十錢으로하는外 (二)京畿道는多摩錦建으로안함을希望하얏다

市勢와市況 (二〇日)

株式 漸進의上放

前場稍强

再昨日後場에漸强한 海外에 큰 變化가 업는 人氣로 東京大阪의 兩市場은 彈力에 不適하야場面은 模倣하야 新高가되어 갓스나 寄付는다만 東新百四十一圓九十錢이 잇섯슬뿐이며 그뒤에도 新規의賣買가 업서 底堅으로 傍觀이엇고 東新百四十一圓 六十錢으로止하얏다 미休日前의 止値보다 大新十錢 東新二十錢高를示하얏다

後場昂騰

前場에强하얏든 바 今場에는 急上伸을示하야東新百四十三圓臺를 突破하고 特히當地는 一層의 上稍人氣이엇스며 諸株도一齊高를 示하얏다

動機待의人氣

絶好押目買處

過般東新의 高値는 天井을 나타낸것이며 特히獨逸財界의 危機와 中國排日形勢의 猛烈等을 보아서 反動가 旺盛케되엇스며 또그동안 無理한 買玉이 만흔데 이整理도 잇서야 될일임으로 時勢는 伸氣가 엇기엇다고보는 傾向이잇다 그런데 目前에 잇서서 새로운 材料가 업고 多少의 整理賣玉도 잇는關係上 弱하게 될 수가 잇지만 압길에 歐洲景氣의 回復이라는 큰材料가 걸쳐잇고 對內的으로는 金融緩慢이 時勢의 底力이 되어잇슴으로 軟派가 보는바와가티 輾轉키 어려운바 結局氣迷를 呈하는이때에 산값을買하야두고 再動의 好機會를 기다릴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排日形勢도 漸次하는 展開될 것이나 中國內에 또는 아닌 모양일으로 排日形勢도 아즉가 려서는 큰 [illegible] 입을것갓지 안타

主要株取組高

▲京取(賣)白井九〇吉野一〇新田二四〇田道五〇〇立山三〇〇白樂九〇(買)大林六〇山口一〇六〇德泰三〇	

[illegible]

前場賣買

▲京取 (賣)山口二〇古野六〇(買)德泰三〇吉野五〇計八〇▲大新(賣)新田五〇(買)成滿三〇古野三〇計八〇▲東新(賣)正崎二〇山口一〇京證二〇成滿六〇新田一〇田道七〇立山二〇(買)德泰一〇京證二〇成滿一〇松山七〇古野五〇新田一〇立山一〇白樂一〇計二〇〇

【京城】 [illegible]

새가變햇는가

不景氣에 個人個人間이나 나라와 나라사이나 모다뭄시도 厭症을내이고 온만큼 이不況打開에 매우도속을태이며 려를 썩인다 ×

오늘 獨逸財界危機에對한 國의救濟策이 어떠한 結果를 보혀줄는지 모르나 어떠튼지 世界不況을 打開하랴함은 各國의 共通點인 만큼 今後에對한 期望을 ×

한國望아 만라고생각한다 昨年東新 八十三圓臺를 나려다 一般人氣가 [illegible] 머엇다 그러나 四圍事情이 變한것을 생각하야 인케부터는 形勢推移를 周到히 觀測하야 對策을 세우라는 方針인 바이다 卽多少의下勢가 잇다고해서 이것을가지고 突込買를하는것은 매우危險性어 相作하는 여어라는것이다(株式)

株式

京取短期取引 (二〇日)

[illegible]

京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期米

代引算定步日 (十八日)

[illegible]

仁川前場

[illegible]

取組高

[illegible]

帳入價格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大阪前場

[illegible]

東京前場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延取

[illegible]

京城 釜山 木浦 大邱 群山

仁川正米時勢

[illegible]

京城正米時勢

[illegible]

仁川大豆時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京城綿絲布時勢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滿洲各地商況

[illegible]

安東取引所株

[illegible]

鎭平銀時勢

[illegible]

滿洲取引所株

[illegible]

奉天票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日本金利

[illegible]

米期 新値에 活躍

前場暴騰

休前에十八圓〇一다今朝大阪初付가 三十五圓上放하야 二十一圓 二十四錢을報하니 買人氣沸騰하야 中限은 十七圓九十錢(十五丁高) 先限은 十八圓二十五錢에 寄로 二十四丁高로 初付한後에 大阪二三節 二十三圓 錢에 相拝하나 各處買物이 殺到하야 二十九錢에 强化하다가 三十 합수업다

◇京取短期前場步調

◇京取=二〇〇—引不成 ◇大新=新不成—二〇〇—引不成 ◇東新=一四九〇—一四〇〇—一四三〇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三六〇—三〇—四〇—三〇—四〇—高 ◇鐘新=三六〇—一〇〇—三五〇—三五〇—二五〇 ◇日産=二〇〇〇—二〇〇〇 [illegible]

京取短期後場步調

◇東新=一四三〇—一四三〇—一四三〇 ◇大新=二七〇—一四〇—一四〇—二五〇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二七〇—二〇〇—一四〇—一〇〇—二〇〇 ◇東新=一四二〇—一四二〇—二〇〇 ◇日産=二〇〇〇—二〇〇〇 ◇鐘新=二九五〇—一〇〇—九五〇 [illegible]

後場續騰

大阪保鉄에始하얏든 前場의 高値를보고 先物은 前止보다八錢高인十八圓四十八錢에 始한뒤 稍軟하얏다가 大阪의反撥을 作하야五十三錢에 强硬히 止하얏다

새의佐藤 猛烈히利喰賣

仁川市場에서 可謂 常勝將軍의稱이잇는 새의佐藤이 그동안 主로 中限을 買付하고 先限도相當히 買付하얏든바 今朝 日本各地上放에 當하야 買人氣 沸騰하는 機會에 乘하야 中限先限 할것업시 猛烈히 利喰賣物을 注入하는 光景이다 그와가티 大量의利喰物이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依然히 新値에奔騰하는것을보면 그만 한新規買物이 相當한것을 察知할수잇고 따라서 大體形勢가 그만치 强硬한것을 짐작하게된다 日本各地의 今朝上放이 大阪의 入船堂 [illegible] 天候에 등어가는데에 上海沖에 大候中 [illegible] 에 ... 東北方面에 잇서서 寒冷한바람이 吹送하게되엇스니 本內地 豐作은 千島 ... 東으로移動하고 高氣壓은 千島 合의 七五三耗의 低氣壓이 東北 ... 收穫期 [illegible]

新高値의活躍

今朝大阪仁川할것업시 暴謄新高値에 活躍하는 光景이나 前途에 아즉도 相當히高値가 남아잇는 듯하다 仁川商狀으로 말하면 그동안 新築이 買鷹되야 와고 各地買勢가 新聞理想配로 展開되는듯함으로 全部가買付하얏으로 主力賈는 이大量利喰賣物을 注入하얏에 不拘하고 依然強硬함을 張하는곳에 買賣買付도 相當 [illegible] 잇거니와 現下正米賣勢로 보던지 天候모양을보던지 大勢는 全然히 下向하는일은 업을 것이다 비록 新高値에 漸高 大勢도 逆轉할것 은 偶然한 일로 利那에 限하야 時狀變動이 잇슬지라도 이 한작 追退하는 大勢 [illegible] 을 期待하는 [illegible] 이 어려운 卽 이 아 니할가? 今年 時勢의 벗어 서 뭇을 기다리는 것이 [illegible] 値를 宗展하고서는 低落押 는 事實로 소 然 衆觀 할수가 업다

米豆蠶繭 ▲一休息지나서日本各地가 三十餘丁式 上放하는 光景이 土用天候에 다다히 關東에 한 朝鮮大候로 말할지라도 伏이 當到한더에 조금도 暑氣를 느끼지못하겟스니 稻苗發育이 될理가 업다 今年米作은 凶作難免 ▲日本朝鮮이 平年作도 못된다 하면 朝鮮米價 二十圓程度는 第一着에 示現하겟지 ▲至今까지의 步調는 尺進寸退로 遲遲하얏스나 土用에 간다 가 못가 시작하엿습으로 今後에는 相當한 激調를 뵐 順序 ▲現下仁川에서 可謂 嗔手로 賣付하고 잇는 것은 今朝에는 如何히 防戰하는 光景 果竟은 그 前賣物로 暴騰이 잇슬 모양이지

波瀾期는到來

土用은樂觀不許

米價 波瀾의 期節은 도라왓다 明日부터 閒中의 土用入이다 今日 天候는 不良하야 今朝上放을 招聚하엿거니와 明日以後는 一晴一雨이 곳時勢 二三十丁 騰落의 作用을 할모양이다 此際 買方은 前途 蓬萬의 動意를 아 前途 時勢에 波瀾 期에 處한 大膽한 措置한 方針이 잇서야 할일이다 現下의 天候 모양이 좀처럼 順調를 잇지 못하 이 到底好調를 가 지 못한다

各地가 (二〇日)

延 暴騰

阪仁의暴騰

▲京城前場

八圓二十五錢으로 新高에 始하고 前退와 利喰으로 二十七錢에 止한뒤 不以上 通하야 總買物이 엇엇스나 地場買向으로 無難히 消化되고 二十八錢에서 四十錢이 엇스며 三回도 三十八錢으로 稍軟調이 엇스나 途轉買와 前退의 旺盛으로 五十一錢에 止하고 五十五錢이 잇슨뒤 買急과 一巡으로 二一人氣 蒸가되어 四十五錢에 止한뒤는 阪仁과反對로 二十九錢에 止하고 角共利의 防戰으로 四十五錢이엇고 反撥하얏스며 大同五十五錢이 엇스나 利喰으로 圓十三 五錢에 敎化한바 九中買商百數

各店倭合

▲常盤(買)◎八〇〇 ◇三〇〇 ◇九〇〇 (賣)... [illegible]

▲當島前場情報 (商) 寄付 大阪 黃堂電報에 今朝米價는 神戶側、正米側이 함고 京濱側、岡山側과 地場은 利喰하야 東京側賣買、中米、株式側、西側及來客側은 前退하얏다

米正 各地의 急落 (二〇日)

▲京城强硬

低落으로始하야 地關係에 買進이며 市中在荷도 曾有치못하야 朝米의 騷騰을 보고 一般貿氣 滯在로 人氣强硬 을 星하야 二十錢高인三『마ー크』三等十七圓二十錢 同等 十七圓 [illegible]

▲木浦前場

大阪群山의 上放과 順氣不良으로 途裡買와 買物이 續出하야 四十六錢에 始한뒤 四十二錢에 强化하고 此邊利喰으로 同價이엇스나 買氣旺盛으로 買物이 繼續치못하고 六十錢 七十四錢으로 新高値이엇는데 此邊買急一巡으로 七十二錢에엇는데 賣方은 池田等

▲京城後場

定期의 稍軟을보고 九中은前止보다三錢低 인十八圓四十錢에 始한뒤定期의 反撥하야 六十錢 시세잇섯다가 五十六錢에 止하다

後場步調 九月中 ▲一同 [illegible]

前場步調 九月中 ▲一同 [illegible]

▲仁川續騰

正米는 日本 地 의 前 에 文도 一巡한모양이나 今年米作 念慮 人氣가 大 振頭하야 持米者는 全部見送하고 常用買物은이 는터에 今朝期米活躍향으로 人氣 더욱强化하야 ㊂ 三等十七圓二十五錢을 唱하야 二十丁高의 氣配이다

[illegible]

仁川 福 太郎

愛顧不斷 約 誓

仁川本町三丁目 クフルマ 水林板引店

米期 仁川海岸町 ㊉ 電話一六〇、六六七 菰淵取引店

當選謝禮 伊川郡學校評議員 李永熙 李鍾八 盧鳳弼 朴勳永 奉昌淵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海岸町三丁目 新田義民 長電話 三二〇番 略(二)又八(ニツタ)四〇六二番

■七月十八日봉切 新劇市場 公演第十二週 料金 上階 大人卅錢 小人廿錢 下階 大人廿錢 小人十錢 晝間零時半 夜間八時 開演

◇李瑞求氏作 洋劇 守備軍의사랑 一幕 全員總出演

◇任曙防氏作 史悲劇 祖國의愛人 二幕 全員總出演

◇花井敏郞氏提供 (冠嶽山人譯) 喜歌劇 어느主人과正直한主人 全一幕 全員總出演

舞踊과音樂

高級常設 團成社

■七月二十二日(水)부터大公開 ◇메트로골드윙會社超特作 大冒險 키톤脫線行進曲 7 바스타ー키ー톤自作自演 ◇코럼비아會社特作 바ー스타ー키ー톤自作自演 大脫出 名匠죠ー지B・쌋이쓰氏大作品 軍法會議 8 재크홀드氏主演 도로시래바ー네助演 ◇코럼비아會社特作 죠ー지B・쌋이쓰氏大作 閃彈 7 재크홀드氏 도로시래바ー네主演 ◇【謹告】 싸이드아말와 靑春젊은 女子大學 二八歲美靑春 市內貫鐵洞 優美館 電話光化門九五〇番

■七月二十一日午後八時부터大公開 料金 上階 大人卅錢 小人廿錢 下階 大人廿錢 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映畫 歷史大活劇 先驅者時代 8 監督ー로이드 主演ー 죠ー지 ◇파라마운트社映畫 大海洋活劇 艦隊入港 8 監督ー ◇파라마운트社映畫 大爆編 非常線 10 監督ー죠셉폰스탄버ー그氏 主演ー조지방크롭트 ◇女소나의天地 人生의乞食 朝鮮劇場